



불교총지종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신문

총기 54년

2025년 9월 1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록경(황보 상민)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9년

제 310 호

제45주기 종조 멸도절 종령 법어

“총지 굳건히 세워 가르침 계승”



종령 지성 대종사

오늘은 정통밀교의 대광명을 이 땅에 드리우고 즉신성불과 불국정토의 대원을 이루고자 총지종을 창종하신 원정 대성사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4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원정 대성사님께서서는 고려 시대 이후 자취를 감췄던 밀교종단의 맥을 잇는 한국 정통밀교의 중흥조로서 대승불교의 연장선상에 수승한 최상승 밀교가 있음을 만천하에 천명하셨습니다. 원정 대성사님에 의해 잊혀졌던 밀교의 비법과 경계, 다라니와 수법 등이 발굴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불교계에 밀교라는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다.

밀교의 불모지에 용기를 내어 첫발을 내딛는 원정 대성사님이 계셨기에 그 걸음을 따라 길이 생기고, 그 길을 따라 불법이 생활 속에 담기고, 생활이 불법과 다르지 않은 수행의 길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무상함을 멸

도로 보여주신 원정 대성사님은 우리에게 고해 바다를 건너는 나침반이 되고, 사바의 풍파가 마음을 흔들 때 길을 밝혀주시는 등불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동안 승단과 교도들은 원정 대성사님의 종생구제와 불국정토의 건설이라는 대원력을 계승하여 정진과 수행으로써 오늘의 총지종을 이끌어 왔습니다. 오늘 원정 대성사님의 열반을 기리며 종조님의 은혜를 되새겨 보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승단의 스승님과 교도들은 총지종의 종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원정 대성사님의 가르침을 계승해 나가야 합니다. 원정 대성사님의 구국도생과 종생제도의 대비원, 그리고 창종 정신이 오늘의 총지종을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수행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오로지 종단 발전을 향해 나아가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끝으로 승단과 교도 여러분들에게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하며, 종단 발전의 서광이 곳곳에 발하기를 비로자나 부처님께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총기 54년 9월 8일

불교총지종 종령 지성 합장

대전 만보사 ‘승강기’ 설치

9월 23일 회향 불공 봉행



대전·충남권의 비로자나법계궁이 자 교화의 대표 거점 사원인 만보사(주교: 승원 정사)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오는 23일 화요일 11시 30분 회향불공을 봉행한다.

올해 초부터 만보사 스승들을 비롯한 교도들의 무진서원으로 시작된 승강기 설치 불사는 지난 4월 업체 선정 및 공사 관련 계약 후 6월 첫 삽을 뜬 이래 근 4개월 만에 회향을 맞이하게 됐다. 연일 폭서와 반복되는 장맛비에도 공사 기간 내내 스승들과 교도들은 큰 원력과 용맹심으로 정진하며, 대일여래의 가지력으로 원만 성취하기를 발원해 왔다.

승원 정사는 “전국의 스승님들과 교도님들께서 정성 어린 마음과 물심양면의 보시로 동참해 주신 덕분에 원만히 회향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하며, “단순한

시설의 정비를 넘어서, 모든 이가 차별 없이 법문을 접하고 도량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길이 되기를 발원합니다.”며 두 손을 모았다.

만보사 승강기는 지난해 8월 총지사에 설치된 간접 유압식 리프트의 형태로 일반 승강기와 비교해 탑승 인원은 물론 전문 인력이 없는 사원의 경우 안전과 사후 관리 면에서도 합리적인 측면이 많다는 평이다.

승강기는 만보사 정면을 중심으로 건물을 오르는 오른쪽 계단과 모퉁이 사이 외곽에 설치되어, 1층에서부터 2층, 3층 서원당까지 견지 않고 오르내릴 수 있다. 승강기 설치 불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누구나 사원에서 편하게 머물고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회향불공 동참자는 오는 9일(화)까지 만보사로 연락하면 된다.

제45주기 종조멸도절 추선불사

날짜 총기 54년 9월 8일(월) 오후 2시

장소 역삼동 원정 기념관 / 전국 각 사원 서원당



불교총지종

종/조/법/어

기복은 작복보다는 못하고 작복은 성불보다는 못하느니라. 본원은 성불이요, 여과는 복덕이라 하느니라.

지 면 안 내

4,5면 함께 읽는 종조법설집 10면 서원당 안의 불교⑥
6,7면 종조 멸도절 특집 12면 밀교법장담론

석관실버, 하반기 교육 개강

인근 거주 총지종 교도 참여 기대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목경 정사)이 운영하는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센터장: 나석원)가 8월 11일 하반기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강했다.

하반기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여가 선용과 지속적인 자기계발 및 건강 관리 지원을 위해 총 32개 강좌로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치매 예방 특화사업 ‘두뇌 건강

클라쓰’, 디지털 문해력 향상 ‘스마트 클라쓰’, 건강 증진을 위한 요가, 실버로빅, 한국무용 등 건강프로그램, 언어적, 음악적 능력 계발을 위한 학습 및 취미 프로그램 등이다.

나석원 센터장은 “지역에 사시는 우리 총지종 교도들도 참여하시어 종단 산하 기관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02-957-9923



바로잡습니다 309호 2면 기사 중 황보 작가를 황보나 작가로 고칩니다.

동해중 학생, 한국과학영재학교에

3학년 김윤후·여준구·서호민 군

학교법인 관음학사 종립 동해중학교(교장: 송인근) 3학년에 재학 중인 2반 김윤후, 6반 여준구, 7반 서호민 학생이 한



김윤후



여준구



서호민

국과학영재학교에 진학하는 영예의 기쁨을 안았다. 학교는 세 학생이 지난달 26일 한국과학영재학교로부터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송인근 교장은 “학생들이 평소 학습활동에 적극적이었으며, 교직원과의 돈독한 신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로 본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다니고 싶은 배움의 터전으로 잘 가꾸어 나가겠다.”는 소감과 함께 합격 학생들에 대한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한국과학기

술원(KIST) 부설로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과학에 특출난 역량과 열정, 잠재성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하는 국내 고교 입시 중 가장 까다로운 수준의 학교다.

고맙습니다

청소년 한마음 캠프 보시

일성혜 스승
총지사 백귀임 신정희 회장
총지사 김영자 교도
총지사 보관심 교도



‘간절함’은 성공의 씨앗

영국의 정치가요, 철학자인 프란시스 베이컨(1561~1626)은 1625년에 발간한 그의 에세이에서 “Prosperity doth best discover vice, but adversity doth best discover virtue.”라고 했다. 직역하면 “번영은 악덕을 드러내고, 역경은 덕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이것이 한국말로 “순경(順境)의 덕은 절제(節制)요, 역경(逆境)의 덕은 강毅(剛毅)다.”로 의역이 되어 베이컨의 명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인생에는 순경과 역경이 있다. 순경은 모든 것이 뜻대로 잘되는 상태요, 역경은 모든 것이 뜻대로 잘되지 않는 상태다. 순경을 만나면 안심하여 도를 지나치기 쉽고, 역경을 만나면 마음이 약해져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다. 순경에 처

했을 때는 교만해지고 자만에 빠지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는 자기를 이기는 것이요, 무슨 일에서나 도를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역경에 처했을 때는 용기를 잃어 희망을 상실하기 쉽다. 그러므로 역경에 처한 자에게는 강의가 필요하다.

강의는 굳센 것이며 늠름하고 용기 있는 것이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이다. 세상에는 순경만의 인생도 없고, 역경만의 인생도 없다. 인생도 날씨와 같아서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다. 맑을 때는 언젠가 비가 올 것을 예상하고, 흐릴 때는 언젠가 맑아질 것을 생각하며, 그날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이 땅에 크나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나, 또는 오늘날 성공적인 삶을 사는 많은 이는 역경에 대해 열

린 마음으로 대처했다.

“실패는 신념이 시험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역경의 시련은 더 큰 노력을 고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반드시 성공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은 20세기 최고의 성공자들을 인터뷰해 성공철학을 체계화한 나폴레옹 힐 박사의 이야기이다. 그는 역경이란 성공에 이르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이라고 말한다.

호텔 왕 힐튼은 역경을 기회로 삼으면서 세계적인 호텔 체인을 구축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힐튼이 호텔 사업에 뛰어들어 사업이 한창 확장일로에 있을 무렵인 1929년에 세계적 대공황이 엄습해 왔다. 미국 호텔업계는 뒷서리를 맞았으며, 호텔업자의 85%가 도산했다. 이 무렵 대부분의 호텔업자들은 호텔사업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다. 힐튼 역시 타격을 입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어려운 순간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도약의 기회로 삼았다.

남들이 호텔 사업은 사양 사업이라며 텅핑으로 내놓을 때 오히려 호텔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전 재산을 투자하고 빚을 내면서까지 말이다. 1940년 무렵 경기가 점차 좋아지면서 힐튼은 일약 호텔업계 최정상으로 거듭났으며, 세계 진출의 발판도 이때 마련하게 됐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 삶이 어려울 때가 있으면 반드시 쉬운 날도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말이다.

분명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뜻이 간절하면 언젠가는 성취한다는 점이다. 옛말에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라 했다. 간절함은 성공의 씨앗으로, 간절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성취의 결과는 더욱 분명하다는 뜻이다. ‘정신일도하사불성(精神一到何事不成)’이라고 하듯이 정신을 한곳에 모으면 안 될 일이 없다. 이 역시 간절한 마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렇게 살도록 함께 정진하자. 시인, 전 동해중학교 교장 탁상달

승강기 불사 원만회향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성도합니다.

존경하는 스승님들과 뜻을 함께 해주신 교도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에 만보사에서 진행한 승강기 불사는 쉽지 않은 원력이었으나, 전국의 스승님들과 여러 교도님께서 정성 어린 마음과 물심양면의 보시로 동참해 주신 덕분에 원만히 회향할 수 있었습니다.

주신 마음 하나하나가 곧 부처님의 자비심이며, 그 원력이 쌓여 만보사의 모든 대중이 더 편안히



도량을 오르내릴 수 있는 공덕의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이 불사가 단순한 시설의 정비를 넘어서, 모든 이가 차별 없이

법문을 접하고 도량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길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또한 동참해 주신 공덕이 스승님들과 교도님 가정에 두루 미치어, 건강과 지혜 복덕구족의 불은(佛恩)이 끝없이 이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옴마니반메훔.

만보사 주교 승원 합장



지혜의 눈

시절인연 時節因緣

불교의 특징은 ‘절대적 구원은 없다’ 스승 만나기 전 치열한 수행이 우선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권10에 나오는 내용이다.

陸互大夫, 初問南泉曰: “古人瓶中養一鵝, 鵝漸長大, 出瓶不得. 如今不得毀瓶, 不得損鵝, 和尚作麼生出得?” 南泉召曰: “大夫!” 陸互諾. 南泉曰: “出也!”

어느 날 육금대부가 남전에게 질문을 던졌다. “옛날 어떤 사람이 병 속에 거위 새끼를 키우고 있었소. 거위가 점점 커지자 병의 목이 너무 좁아서 나올 수가 없었소. 자, 이제 병을 깨뜨려도 안 되겠고 거위를 다쳐서도 안 되겠는데 화상께서는 어떻게 그 새를 빠져나오게 하시렵니까?” “대부!” 남전이 그를 불렀다. 이에 육금이 “예.”하고 대꾸하자 남전이 말하였다. “나왔습니다 그려!”

먼저 ‘南泉’은 남전이 아니라 남전으로 읽는다. 남전보원(南泉普

願, 748~834)은 당나라 때의 선승으로 마조도일(709~788)의 제자이자 조주종심의 스승이다. 선종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먼저 선문답은 일상어로 이루어진 특징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진 문답이 많아서 중국의 일상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두 번째로는 선승은 교종의 승려와 달리 학문적 소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하층민 출신도 많았다. 글자를 제대로 몰랐던 6조 혜능이 선종의 대종사로 추앙받는 이유는 경전에 해박했기 때문이 아니다. 셋째 불교는 당(唐)나라 때 커다란 탄압을 받아서 교종이 크게 쇠퇴하였지만, 상류층 귀족의 후원에 의지하지 않았던 선종은 자급자족하면서 대법난 시대를 넘어왔다.

위 선문답에서 병 속의 새를 키운다는 것은 지식이 쌓이고 자기

나름대로 주관이 확립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주관이란 사람마다 다르고 첨예하게 부딪히기 마련이라 당연히 상대를 이기려는 탐욕과 그로 말미암은 분노로 판단이 흐려지면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다는 점이다. 실재론의 입장에서는 개개인이 독립된 실체를 가지고 있고 세계와 독립된 존재로 규정하기에 각자의 주장이나 세계관을 조화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비실재론의 입장에서는 모든 존재를 독립된 개체로 규정하지 않고 관계로서 설명하기에 주장이나 세계관을 조화시킬 필요가 없다. 그런데 태어난 이후 인간은 끊임없이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뚜렷한 주관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불교의 비실재론적 성격이 선뜻 수용되기 어렵다. 설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현실에서는 그런 인식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명상 또는 참선하는 동안 생각이 가라앉아서 머리가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른다. 이를 불교에서는 의식이 폭포수처럼 흐른다고 한다. 우리의 뇌는 한시도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 잠을 자는 동안에

도 끊임없이 작동한다는 점은 뇌과학으로도 설명된다. 명상 또는 참선한 사람들의 말로는 수행을 오래 하면 그 생각의 흐름이 느려진다고 한다. 그렇지만 남전이 육금대부를 부르고, 그가 대답하자 “나왔다.”고 하는 부분은 나로서도 이해 불가이다. 모든 선문답의 등장인물은 매우 오랫동안 수행한 사람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선문답은 말장난 같은 언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적어도 육금대부는 오랫동안 수행했던 사람이고 남전에 의해 그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선가(禪家)에서 흔히 말하는 쉼타동시(曄啄同時)를 떠올리는 수밖에 없다. 아직 알을 깨고 나올 때가 아니라면 밖에서 쪼았을 때 알이 깨져버리고 말 것이다. 여기에서도 불교의 특징이 드러나는데, 절대적 구원은 없다는 점이다. 다만 스스로의 수행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는 것이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스승이 필요한 것은 시절인연(時節因緣)인 것이다. 스승을 기다리는 것 이전에 치열한 수행이 우선이라는 점을 기억하여야 한다.

칼럼니스트 김태원

윤금선 작가와
함께 읽는 『종조법설집』

불교는 자비와 깨달음으로 신의 구원을 넘어서는 가르침

제1장 교상(敎相)과 사상(事相) 편(篇)
제3절 각종 논설

10. 불교(佛敎)적 인생관(人生觀)과 기독교적 인생관

불교(佛敎)는 기독교(基督敎)보다 포용성(抱擁性)과 관용성(寬容性)이 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통(通)하지 않으면 천당(天堂)에 갈 수 없다는, 즉(卽) 신(神)과 인간(人間) 사이에 예수라는 중계자(仲繼者)가 있어서 반드시 그에 의(依)하여서만 구원(救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상(思想), 인간(人間)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地獄)에 간다는 사상(思想)이 옳을까. 인간(人間)으로서 나무랄 데가 없는데 다만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理由) 하나로 지옥(地獄)에 떨어진다는 것은 모순(矛盾)이다. 여기에 죄(罪)에 물들지 않는 훌륭한 인격자(人格者)가 있다고 하자. 비록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과연(果然) 그에게 벌(罰)을 줄 수 있겠는가. 예수를 믿거나 아니 믿거나 간에 훌륭한 사람은 구제(救濟)되어야 할 것이다.

아니, 구제라니 지옥(地獄)에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여기에 원죄설(原罪說)의 모순(矛盾)이 있다.

초등학교 1~2학년 즈음, 시라는 것을 처음으로 썼는데 제목이 ‘부처님’이었다. 내용은 생각나지 않지만, 첫 구절만은 또렷이 기억한다. ‘나에게 부처님은 하나밖에 없는 신이시다.’ 어린 마음에도 부처님이 어찌나 좋던지 온갖 현사를 늘어놓았던 기억이 어렵듯 하다. 그때는 신이 뭔지,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부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쏟아냈던 것 같다.

부처님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은 한참이 지나서야 알았다. 그렇다고 달라진 것은 없었다. 아니 오히려 부처님의 위대함은 더 크게 다가왔다. 우주와 생명을 창조하거나 인간의 삶을 주재하는 신은 없으며, 우리 스스로가 인생과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인이라는 가르침은 가슴을 뛰게 했다. 인간으로서 다다를 수 있는 최고, 최상의 인간상을 보여주셨기에 더 존경스러웠다.

부처님을 마냥 좋아해 신처럼 여기던 때, 우연히 구역 예배를 구경하게 되었다. 이모 댁에서 놀다가 예배하기 위해 모인 신자들 틈에 낀 것이다. 그때 그분들은 사탄에 관해 공부했다. 열 가지 종류의 사탄이 열거되었는데 그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사탄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다. 아무리 선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탄이고 지옥에 떨어진다고 했다. 예배가 끝나고 이모에게 물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처럼 훌륭한 분도 그러면 지옥에 갔냐고. 이모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다고 했다. 바르게 살기만 하면 종교가 무엇이든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는 건 사탄이 하는 말이라고 못 박았다.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전지전능한 신이라는 존재 자체도 가슴에 와닿지 않았는데 선행과 마음 씀보다 신에 대한 믿음이 우선이고 전부라는 데에서 마음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 50,000



본존다라니(연록)
13.5x17x3cm
₩ 40,000



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 10,000



가정본존다라니(대형)
46x27x2.5cm
₩ 29,000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 3,000



보리수 108염주
₩ 40,000



만복염주 108염주
₩ 15,000



핀보리수 108염주
₩ 40,000

은 완전히 단했다.

부처님이 신이 아니라서 더 좋았다.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하고 교리와 경전을 배우며 신심과 확신은 깊어졌다. 우리 모두 부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동경심을 키웠고, 나도 그 길을 가보겠다고 용기도 냈다. 공부하면 할수록 자부심과 자긍심은 높아갔다.

퇴근이 늦어 두 아이를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맡겨놓은 어느 날, 집에 오는 내내 입이 삐죽 나온 게 심상치 않았다. 무슨 일인지 물으니 예닐곱 명의 아이들이 둘러앉아 놀다가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있냐고 해 둘째가 손을 번쩍 들었더니 약속이나 한 듯이 ‘지옥 간대요, 지옥 간대요’ 하며 놀렀다는 것이다. 큰아이는 그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가만히 있지 않고 손을 든 동생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들이 절에 다닌다는 친구에게 대뜸 지옥 간다고 했다면 그건 모두 어른들 탓이다. 순수한 동심을 편협한 종교관으로 물들여놓은 어른들에게 화가 났지만 뭐라고 달래야 할지 난감했다.

하루는, 둘째 아이가 막대 사탕 하나를 받아와서는 신나 했다. 토요일이면 하굣길에 전단지 쪽지와 자그마한 알사탕 2개를 받아오던

아이는 막대 사탕을 받은 게 못내 좋았던 모양이다. 어디서 났냐고 물으니, 어떤 아저씨가 주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단다. 뭐라 기도했냐고 물으니 아이의 머리를 감싸 쥐고는 이 아이의 원죄를 용서하시라 했단다. 옥, 하고 치밀어오르는 걸 꺾꺾 누르며 말했다. ‘너 에겐 아무런 죄가 없어. 너는 너무나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야. 너는 그대로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야.’ 이웃 종교인들의 일방적인 강요와 무례할 정도의 집요함에 불편했던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는 소리가 높을수록 거부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 우리 불자들은 어떤가? 믿음과 확신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한때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불교계와 불교인에게 불만이 많았다. 공부하지 않고 자세히 안내해 주지도 못하는 것이 싫었다. 어려운 말만 반복하면서 쉽게 알려주지도 못하고 가깝게 느낄 기회도 만들지 않는 구태의연함이 싫었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는 무심함이 답답하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이해가 가기도 한다. 어차피 때가 있는 법이고

인연이 성숙해야 한다. 부처님을 찾게 될 때가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가올 때가 있기는 하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억지를 부리고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부처님께서도 당신이 말했다고 하더라도, 훌륭한 스님이나 저명한 학자나 존경받는 누군가가 말했다고 해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천하여 진정으로 이익과 행복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받아들이라 했다. 원용무애함이 불교의 참모습이다. 융화하고 포용하는 넉넉함과 너그러움이 불교의 미덕이자 교리 자체가 그렇다. 상식적으로도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절대적으로 내가 옳다는 신념은 대립과 갈등을 낳을 뿐이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배타적이고 편협한 종교관이 없을까? 솔직히, 창조주나 절대신을 믿는 이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우월감 같은 게 있는 게 사실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위대하여 그 어떤 종교나 철학도

비할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불교만이 최고라 여기며 얽잡아보거나 다른 이들의 훌륭한 이야기에 눈감아버리기 쉽다.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배운 게 있다. 정말로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진실로 베푸는 사람은 하나같이 자신을 낮춘다. 한 스님의 블로그에서 본 글을 잊지 않으려 한다. “윗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은 반듯한 사람입니다. 아랫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동료에게 겸손한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입니다.”

〈무명을 밝히고〉 〈거룩한 만남〉
윤금선 BBS 구성작가

▼ 26면 가로세로 정답

별	사	봉	공		유		재	활	용
도		사		인	공	지	능		두
절	기		남		자				사
	러		북			사	의	찬	미
	기	승	전	결			기		
대			쟁				소	쿠	리
들		출			가	르	침		
보	릿	고	개		장			순	방
			천	연	자	원			망
우	여	곡	절		리		나	들	이

불교총지종 가정희사고



사이즈 가로 25cm
세로 15cm
높이 15cm
정가 60,000원
문의 02)552-1080
불교총지종 통리원

가정희사고가 제작되어 보급 중입니다.
희사공덕으로 서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에 공(供) 할 것은 아무데나 못 쓸지라 정성으로 정시(定施)하고, 때로 차시(差施) 모은 것은 한 분 밖에 다시없는 법신불에 회사한다.<종략>

정시(定施)는 제독(除毒)이며 또 곡식을 심는데 밑거름과 같으며 차시(差施)는 옷거름과 같이 그 때마다 속히 그 서원을 성취하고 절량(絶糧)은 생미(生米)로써 때때로 불공함이니 각자가 이것을 실천하여 법신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면 다 진실로 자기에게 곧 실지 묘과(妙果)가 있는 것을 알지니라.

〈종조법설집 보시와 법시 편 중〉



왕생법문

종조 멸도 45주기 추선 특집

즉신성불의 길, 원정 대성사의 삶과 대비원



한국 현대 밀교를 일으켜 세운 원정 대성사

한국 현대밀교의 개척자 원정 대성사 (苑淨大聖師 1907.1.29~1980.9.8.)

불교총지종을 창종한 원정 대성사는 일직(一直) 손 씨(孫氏)로서, 휘(諱)는 대련(大鍊), 후일 총지종의 개산과 더불어 정우(禎佑)로 개명했다. 법호(法號)는 원정(苑淨)이다. 1907년 1월 29일 경상북도 밀양군 산외면 다죽리에서 탄생한 원정 대성사는 일찍이 개화의 물결을 타고 현대 고등교육을 마치고 관계와 교육계에 종사했다. 20대에 불교에 뜻을 세운 후 한반도는 물론이고 만주·중국 등을 두루 다니며 불경의 수집과 연구에 몰두하였다.

그러던 중 비극의 6·25 한국전쟁을 만나 전쟁의 참혹함과 도탄에 빠진 중생들의 고통을 목격하고, 호국

불교를 통해 나라를 구하고 중생을 구제해야겠다는 대자비의 서원을 세웠다.

6·25 한국전쟁 직후 진각종의 개조인 회당 손규상 조사와 함께 진각종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회당 조사의 입적 후인 1963년부터 총인 자격으로 진각종을 이끌며 『응화성전』, 『총지법장』 등을 편찬하면서 진각종의 교리적, 행정적 기반을 확립했다. 이후 진각종을 떠나 밀교의 비법으로 정진하던 중 1972년 4월 7일 “『대승장엄보왕경』과 준제관음법으로 교화하라.”는 관세음보살의 몽수를 받고 교상 확립에 착수했다.

그해 8월 21일 범신대일여래의 가지력과 대성사의 영명한 통찰력으로 엄격한 의례와 사종수법을 비롯한 밀교의 기틀이 갖추어짐에 따라 대성사는 오랜 은거의 수련을 거두고 정법홍포를 발원하셨다. 원정 대성사는 진각종의 중진 스승들과 식견 있는 제자들이 입교개종을 최측함에 따라 밀교 중흥의 결심을 굳히고 드디어 1972년 12월 24일 비로자나 부처님을 교주로 모시고 불교총지종의 창종을 만천하에 선포하였다.

밀교 중흥의 발판 원정 대성사

이 땅 대한민국에 윤원대도(輪圓大道), 즉신성불(即身成佛)의 정법밀교를 다시 꽃피우게 하신 총지종의 종조(宗祖) 원정 대성사(苑淨 大聖師)! 한국의 밀교는 1,600여 년 전의 불교 전래와 함께 신라와 고려를 거치면서 민중을 구제하고 슬한 국난을 극복하며 흥왕했다. 그러나 조선조의 억불정책 속에서 밀교는 쇠퇴하고 통불교 속에서 겨우 그 명맥만을 이어왔다. 이에 한국밀교의 중흥을 위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난 분이 바로 정통밀교 총지종을 창종하신 원정 대성사였다.

해방 이후 한국의 현대밀교사를 돌아볼 때, 천재적 통찰력과 혜안을 지니셨던 원정 대성사께서 해방과 6·25 한국전쟁 이후 어려웠던 당시 사회에서 정신적 치유와 자성 참회를 주창했던 진각종 창종주 회당 조사를 만난 것은 신생 한국밀교의 흥복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성사의 해박한 불교지식과 뛰어난 밀교수법(密敎修法)의 수행력과 가르침은 총지종과 진각종뿐만 아니라 한국밀교의 새로운 태동과 밀교 중흥의 발판이 되었던 것이다.

불교국 고려를 끝으로 사라져 버린 밀교정법이 원정 대성사의 오지신력(五智神力)으로 하나하나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한국의 현대밀교는 기나긴 잠을 깨고 태동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잊혀졌던 밀교의 비법(秘法)과 경궤(經軌), 다라니(陀羅尼)와 수법(修法) 등이 발굴되기 시작하면서 통불교 일색이었던 한국의 불교계에 ‘밀교’라는 말을 처음 전파했던 분이 바로 원정 대성사인 바, 이에 불교사적 평가는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창종과 정통밀교의 수립

총지종 창종 이후 원정 대성사께서는 진각종에서의 교리적, 행정적 착오를 반성하시고 정확한 인계, 엄격한 의례와 사종수법을 비롯하여 교상(敎相)과 사상(事相) 면에서 완벽한 체계를 갖춘 정통밀교의 확립에 노력하셨다. ‘즉신성불’과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밀교의 대중화에 진력하셨다. 한국 현대밀교사상 최초로 삼매야계단(三昧耶戒壇)과 금강계단(金剛戒壇)을 열어 관정식(灌頂式)을 베풀고 정통밀교를 전수할 아사리(阿闍梨)를 배출하셨다.

대성사께서는 해방 이후 한국에 ‘밀교’라는 용어와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셨을 뿐만 아니라, 총지종과 진각종이라는 현대 한국밀교 양대 종단의 산과 역할을 하심으로써 1980년 9월 8일 입적하실 때까지 현대 한국밀교사의 수립에 건인 역할을 하셨다. 대성사의 일대기와 현대 한국밀교사의 궤적이 일치한다고 평가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대성사의 사상은 『종조법설집』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불공 잘해라> 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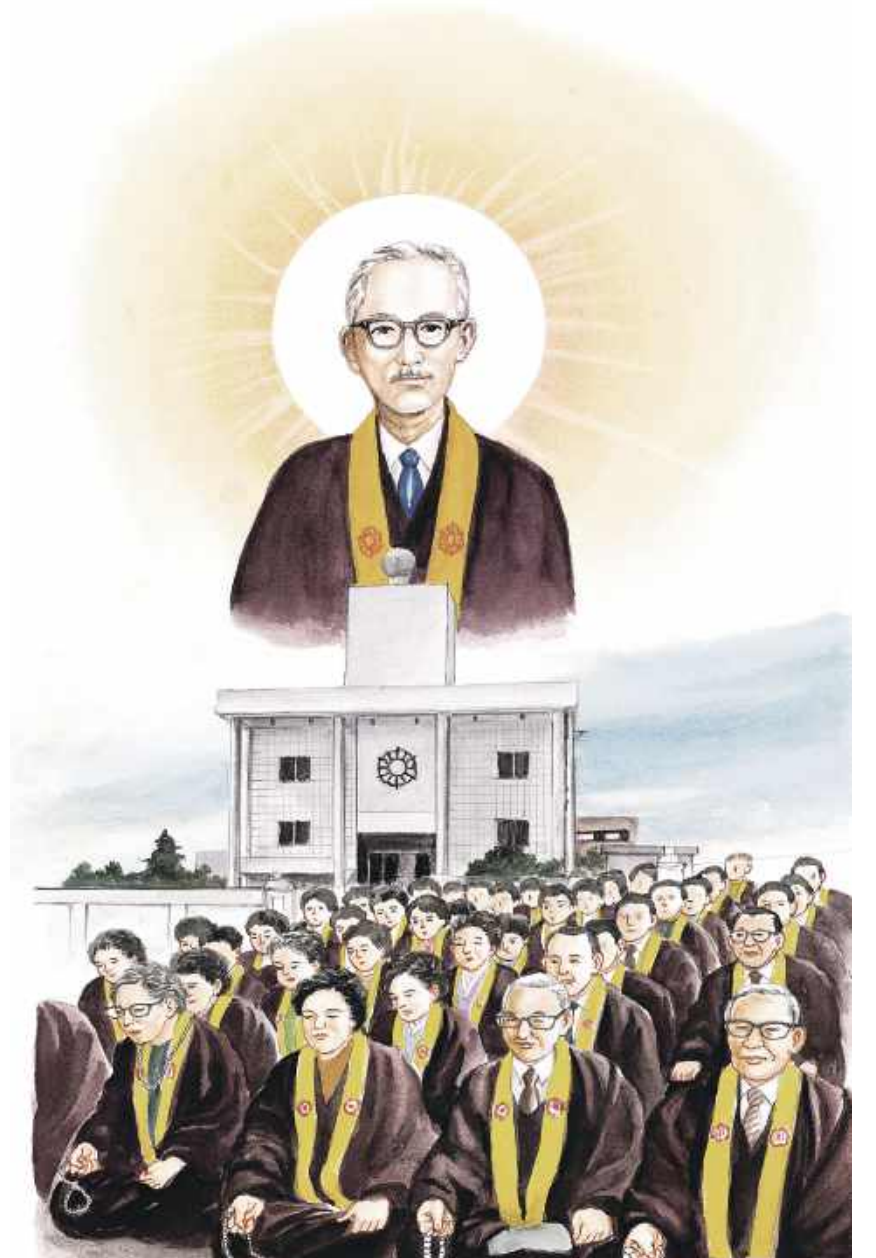
에 잘 나타나 있다. 총지종의 소의경 전인 『대승장엄보왕경』,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을 번역하여 발간 하셨으며, 이 밖에도 대장경의 핵심을 모은 『불교총전』 등을 편찬하셨다. 여기에 교화의 방편으로서 준제법을 주축으로 삼고 증익(增益)·식재(息災)·경애(敬愛)·항복(降伏)법 등의 사종수법(四種修法)을 채택하였으며, 아사리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의 밀교 비법과 관법(觀法)을 소의경전에 의거하여 마련하셨다.

밀법 홍포의 대원을 부촉하다

창종한 지 만 7년, 교세는 요원의 불꽃처럼 일어나 본산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총지사를 비롯하여 전국 30여 개소에 사원이 개설되고, 행정기관인 통리원과 함께 교리적인 면을 뒷받침한 연구기관으로서 법장

원이 신설되었다. 교도의 참여와 실행 활동을 돕기 위하여 신정회가 결성되었으며, 각종 교전이 편찬되었다. 이와 함께 대성사께서는 ‘처처불공 시시불공(處處佛供 時時佛供)’을 강조하시며 모든 불사와 식순을 간소화함으로써 어려운 밀교수법의 대중화에 진력하시면서 대중에게 심오한 밀교의 비법을 쉽게 열어 보이셨다.

그러나 정통밀교의 중흥과 불교의 대중화에 노구를 이끌고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던 대성사께서는 1980년 9월 8일 밀법홍포의 대원(大願)을 제자들에게 부촉(咐囑)하시며, 74세를 일기로 이 세상의 인연을 다 하고 입적하셨다. 이 땅에 처음으로 현대밀교의 물꼬를 열고 대승불교의 새 지평을 연 원정 대성사의 가지신력이 ‘불교총지종’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호국불교의 대비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흥겨운 축제로 평화와 통일을 서원하다



총지종의 역사

제4부
제2의 도약을 준비하다(2011년~2021년)

02. 시대와 함께하는 총지종 구현

남북통일과 세계평화 축원

남북 불교 교류를 통해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온 종단은 문화 공연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노래했다. 2011년 10월 29일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한 불교총지종 40주년 통일 음악 예술제는 음악을 통한 화합과 조화, 부처님의 진리로 하나 되는 통일의 장을 펼쳤다. 메디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축하곡과 권성순 소프라노의 가곡, 선화예중 최유정 학생의 찬불동요로 개막을 알리고, 세대와 계층, 지역을 뛰어넘어 남북통일

과 세계 평화로 나아가기를 축원하는 개회 범회를 봉행했다.

본무대는 ‘원정 대성사의 일대기 및 소리로 하나 된 총지인의 노래’를 주제로 개천사 금강합창단이 ‘원정 대성사의 탄생과 불교 입문’, 정각사 만다라합창단이 ‘원정 대성사의 수행과 창종’, 서울경인교구 마니합창단이 ‘원정 대성사의 대원과 열반’을 노래하고, 갈등과 분단을 극복하고 화합과 통일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연합 합창 ‘총지인의 노래’로 전했다. 이어진 대중 가수의 특별공연으로

흥을 돋웠다.

2,000여 명의 불자가 참여한 가운데 시종일관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제1회 통일 음악 예술제는 원정 대성사의 밀교 중흥의 대원력을 대중에게 전하고, 부처님의 법음으로 민족의 미래를 가꾸려는 진호국가의 의지를 전파했다. 제5회 국제 재가불교 지도자 대회에 참가한 재가불교 지도자와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 소외 이웃 200여 명을 초청하여 화합의 장이라는 의미를 더했고, 김포 마하이주민지원센터, 오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한중대인연대, 새터민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창종 40주년을 앞두고 뭔가 신명나는 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종단을 홍보하고 새로운 교도도 늘어날 수 있는 문화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우리 종단이 일찍부터 조국 평화통일을 공식불공, 개인불공에서 늘 서원해 왔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염원은 모든 교도 몸에 배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통일을 모티브로 삼았어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그분들도 돕자는 생각이 있었어요. 마침 국제 재가불교 지도자 대회도 있으니, 우리나라의 격조 높은 불교문화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참석자들 모두 흥겨운 무대였지만,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우리 교도들은 시종일관 들쭉들쭉하면서 환희로워했어요. 종단 40주년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가 됐지요. 나중에는 불교계의 참여도 늘리고 세계음악인이 함께하는 행사로 발전해서 보람이 컸습니다.” 불교총지종 50년사 인터뷰, 지성 대종사

제2회 통일 음악 예술제는 2012년 10월 6일 종립 동해중학교 운동장에서 봉행되었다. ‘사회 화합과 계층 간 융화의 한마당’을 주제로 한 제2회 통일 음악 예술제는 종단의 문화 역량과 사회 통합에 대한 의지를 다시



2012년 10월 6일 제2회 통일음악예술제

한번 드러냈다. 식전 행사로 동해중 학교 풍물패의 길놀이가 펼쳐지고, 위드 오케스트라의 ‘위풍당당 행진곡’으로 축제의 서막을 열었다. 총지종 연합합창단의 찬불가에 맞춰 100여 명의 스승이 일렬로 무대에 오르면서 시작된 1부 법회는 정통 밀교 의궤에 맞춰 장엄하게 봉행됐다. 본 공연은 동해중학교 풍물패의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서울경인교구 마니합창단, 개천사 금강합창단, 정각사 만다라합창단, 강세영의 가야금병창, 비움 중창단, 관무용단, 평양예술단, 초청가수 조항조의 무대가 펼쳐졌고, 120명의 총지종 연합합창단의 합창으로 마무리되었다.

2013년 제3회 통일 음악 예술제는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기념해 ‘평화를 노래하다’를 주제로 9월 28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되었다. 1부 ‘여는 소리’에서 모듬북 타악 공연을 시작으로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총지종 서곡 연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효강 종령의 영상 범어가 상영됐다. 2부 ‘평화의 소리’에서는 북한 출신 최성환 작곡가의 아리랑을 비롯해 정행 스님, 퓨전 듀엣 비무티, 김용우 소리꾼 등의 공연이 이어졌다. 3부 ‘상생의 소리’에서는 봉행위원장인 법등 통리원장의 감사 인사와 130여 명으로 구성된 총지종 연합합창단의 찬불 공연이 펼쳐졌다.

2014년 제4회 통일 음악 예술제는 ‘마음의 소리, 치유의 음악, 평화의 노래’를 주제로 10월 25일 부산 KBS 홀에서 개최됐다. 마음의 평화와 사회적 화합을 위한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힐링 음악회로 중국, 대만, 베트남, 티베트 등 세계 각국의 불교음악인이 참여했다. 특히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의 일본협회 회장 후지타 스님과 신도 6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아울러 국가적 비극인 세월호 참사로 아픔을 겪은 유가족을 위로하고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여 당시 전 국민을 슬픔으로 몰아넣었던 세월호 참사에 공감과 연대를 표했다. ‘세계의 소리’ 공연에서는 베트남 전통악기 단창 연주, 중국 전통악기 쟁 연주, 티베트 전통악기 림부와 다넨 연주, 대만 치유



‘2018 정각음악제’ 정각사 만다라 합창단

음악가 바나이나가오와 아모르라다의 무대가 펼쳐졌다. 각국의 전통음악과 총지종 합창단의 불교음악 공연이 한데 어우러져 세계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다.

지역과 사원 행사로 전환

통일 음악 예술제는 2016년부터 변화를 꾀했다. 종의회 의장 수현 정사를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기획 단계부터 행사의 전 과정을 부산경남교구에서 주관하여 지역 사원의 역량을 높이고 지역의 교화 활성화를 도모했다.

제5회 통일 음악 예술제는 2016년 10월 1일 ‘그치지 않는 통일의 노래’를 주제로, 2회 대회에 이어 부산지역의 명문사학으로 자리 잡은 동해중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하여 학교법인 관음학사의 가치를 알렸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으로서 첨예한 대립을 이어 오고 있는 현실에서 부처님의 법음으로 남북이 하나 되고 국운이 융창하기를 기원했다.

5회부터는 합창 예술제로 전환하여 범어사 합창단, 진각종 유가합창단 등 부산 지역의 불교합창단이 함께 했다. 합창 공연과 경연대회 중간에 비보이 공연, 평양예술단 공연, 푸

짐한 경품 추첨 등으로 열기를 더했고, 마지막 순서로 내빈과 참석자 전원이 통일의 염원을 담아 1,000여 개의 통일서원 풍선을 날리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하는 장관을 연출했다.

2017년 제6회 통일 음악 예술제는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노래로 이루는 화합, 그리고 통일’이라는 주제로 10월 24일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됐다. 부산 지역의 흥법사, 한마음선원 등 불교합창단의 찬불가 경연과 종단 합창단의 찬불 공연, 초대 가수의 공연 등으로 흥겨운 축제의 장을 펼쳤다.

2018년부터는 지역과 사원의 문화 공연으로 전환했다. 대구경북교구는 연합합창단 주관으로 ‘2018 금강합창제’를 개최했다. 금강합창단의 ‘백팔염주’ 등 아름다운 음성공양과 함께 아크로바틱 듀엣의 현대무용, 이선아 씨의 전통무용과 범고 연주, 드림오카리나 연주단의 오카리나 앙상블, 대금소리의 궁중음악 세령산대금합주 공연이 이어지고, 수계사 해음 전수의 가야금병창 특별공연으로 감동을 더했다.

정각사는 ‘2018 정각음악제 - 정각

의 도량에서 울리는 바른 깨달음의 소리’를 개최했다. 지역의 불교합창단이 함께하는 문화예술공연과 함께 각종 체험 부스를 마련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문화축제를 선보였다. 정각사 자성학교 댄스팀의 댄스 공연, 정각사 만다라합창단을 비롯한 영주암 본래지합창단, 동명불원 가람소리합창단, 대광명사 소리장엄합창단, 미룡사 바라밀합창단의 공연과 다양한 먹거리 장터, 체험 활동, 풍물과 문화 공연으로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불교문화 행사로 발돋움했다.

이듬해 ‘2019 정각음악제 - 가을, 깨달음을 노래하다’가 정각사 서원당에서 열려 600여 명의 관객이 함께하는 성대한 음악축제가 펼쳐졌다. 정각사 경내에 마련된 다양한 먹거리 장터와 체험마당은 지역 주민의 참여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고 정각사 만다라합창단, 흥법사 깐따모레합창단, 진각종 유가합창단, 해원정사 합창단, 범어사 합창단이 찬불가와 함께 대중가요를 불러 흥겨운 시간을 선사했다. 그밖에 정각사 밤벨팀의 연주, 종립 동해중학교 학생들의 댄스 공연, 정선희 명창의 판소리, 합창단 지휘자로 구성된 남성중창단의 특별 공연 등을 선보여 부산 지역의 불교계가 하나 되는 어울림의 장을 제공했다.

해광 정사의
서원당 안의 불교⑥

금강계만다라의 사인회(四印會)는 그림과 같이 구회만다라(九會曼荼羅)의 왼쪽 중에 가장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사인(四印)이란 존상으로 그려진 중앙의 비로자나불, 사방사불(四方四佛)과 삼매야형〔三昧耶形, 상징성, 불구(佛具)〕으로 그려진 사불의 사친근보살(四親近菩薩, 원 안 대각선 방향), 네 귀퉁이의 사공양보살(四供養菩薩, 원 바깥쪽 대각선) 등 모두 13존을 표현했다.

중앙의 비로자나불(중앙)을 동서남북으로 둘러싸고 있는 사존(四尊)은 모두 사불(四佛)의 상수격에 해당하는 보살로서 금강살타(金剛薩埵, 아래), 남방보생불의 금강보보살(金剛寶菩薩, 왼쪽), 서방 아미타불의 금강법보살(金剛法菩薩, 위쪽), 북방 불공성취불의 금강업보살(金剛業菩薩, 오른쪽)이다.

동방의 금강살타는 금강견고한 보리심을 구축한 보살이며 보현보살과 동체(同體)로 여겨지고 있다. 남방의 금강보보살은 마니보(摩尼寶)를 지니고 중생들에게 안락과 만족을 시여하고 중생들의 끝없는 서원을 모두 들어주는 보살이라 하여 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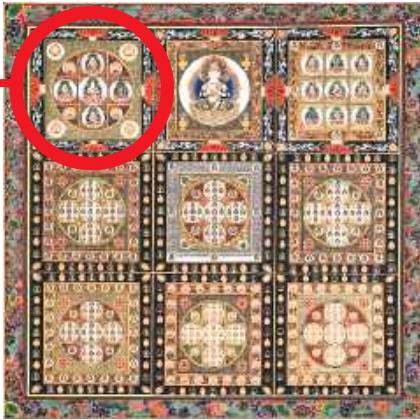
공장보살(虛空藏菩薩)의 동체(同體)로 보고 있다. 서방의 금강법보살은 아미타불을 대신하여 번뇌에 물든 중생을 구제하는 관자재보살의 동체(同體)로 보고 있다. 북방의 금강업보살은 불공성취불 곁에 있는 보살로서 중생을 제도하고자 활동하고 있는 보살이다.

비로자나불의 사친근보살(四親近菩薩)은 사바라밀보살(四波羅蜜菩薩)을 말하며, 대각선 방향인 사선(斜線, 안쪽 원 대각선)에 위치해 있다. 이 가운데 금강바라밀보살(왼쪽 아래)은 번뇌를 타파하여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는 보살이고, 보바라밀보살(왼쪽 위)은 재보(財寶)의 덕(德)을 나타내는 보살로서 보시의 공덕으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보살이다. 법바라밀보살(오른쪽 위)은 제법실상(諸法實相)을 깨닫게 하는 지혜와 그 작용력을 상징하는 보살이고, 업바라밀보살(오른쪽 아래)은 갈마바라밀보살이라고 하며 정진을 통해 공덕을 이루게 하는 보살이다.

사인회에는 위의 팔보살(八菩薩) 외에 네 분의 보살이 더 있는데, 바

금강계만다라-사인회 四印會

사인회	일인회	이취회
공양회	성신회 (갈마회)	항삼세회
미세회	삼매야회	항삼세 삼매야회



로 사공양보살(四供養菩薩, 원바깥 대각선)이다. 공양보살에는 모두 여덟 존(尊)이 있으며, 이를 팔공양보살(八供養菩薩)이라 한다. 그 가운데 비로자나불이 사불(四佛)에게 공양하기 위해 출생시킨 보살을 내사공양보살이라 하고, 반대로 사불이 비로자나불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 출생시킨 보살을 외사공양보살이라 한다.

팔공양보살 가운데 사인회에 등장하는 공양보살은 내사공양보살이다. 대원륜(大圓輪)의 안쪽에 있는 보살로서 여기에는 금강희보살(金剛喜菩薩), 금강만보살(金剛鬘菩薩), 금강가보살(金剛歌菩薩), 금강무보살(金剛舞菩薩) 등이 있다.

금강희보살(金剛喜菩薩, 왼쪽 아래)은 비로자나불이 아축불에게 공양하기 위해 출생시킨 보살로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보살이고, 금강만보살(金剛鬘菩薩, 왼쪽 위)은 비로자나불이 보생불에게 공양하기 위해 출생시킨 보살로서 보배의 꽃다발을 주는 보살이다. 금강가보살(金剛歌菩薩, 오른쪽 위)은 비로자나불이 아미타불에게 공양하기 위해 출생시킨 보살로서 설법의 덕을 노래로서 전해주는 보살이며, 금강무보살(金剛舞菩薩, 오른쪽 아래)은 비로자나불이 불공성취불에게 공양하기 위해 출생시킨 보살로서 정진의 덕(德)을 춤으로 나타내는 보살이다.

해광 정사(시법사 주교)

자自 재在 차茶 인人 회원모집

모집대상	차를 즐기고 좋아하는 분 누구나 다도에 관심이 있고 배우고 싶으신 분
수업일시	매월 둘째, 셋째 수요일 / 오전 11:00~12:00
모집기간	수시 모집
접수방법	전화 및 방문 접수
장 소	정각사 별관 1층 다도실
문 의	051-552-7901 (총무실)

 불교총지종 정각사

만다라합창 단원모집

모집대상	음악을 즐기고 좋아하는 분 누구나
수업일시	매주 화요일 / 오전 10:30 ~ 12:30
모집기간	수시 모집
회 비	15,000원
접수방법	전화 및 방문 접수
장 소	정각사 별관 2층 합창단실
문 의	051-552-7901 (총무실)

 불교총지종 정각사

남해 정사의
인도성지순례기

급고독장자의 원력과 부처님 법이 살아있는 자리

⑨ 사위성 기원정사

이렛날에는 기원정사가 있는 스라바스티(코살라국 사위성)로 향했다. 부처님은 코살라국의 위성 도시국가인 카필라바스투에서 태어났으며 크샤트리아 출신이다. 그래서 코살라국의 파세나디 왕은 부처님을 같은 국가, 같은 계급, 같은 동년배라 많이 따르고 의지했다고 전한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찾아온 파세나디 왕과 왕비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자신이 소중하듯 모든 사람은 자신을 가장 소중하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라고 설법한 내용이 전한다.

먼저 수닷타 수투파를 참배하였다. 수닷타 수투파는 기원정사를 조성한 수닷타 장자의 공을 기려 후대에 세운 탑이다. 기원정사는 팔리어로 ‘제타와나 아나타뻔디카 위하라’이다. ‘제타 태자의 동산에 급고독장자가 지은 절’이란 뜻이다. ‘급고독’은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보시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바로 수닷타 장자를 표현한 말이다. 그래서 기원정사를 ‘기수급고독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원정사를 부처님께 보시한 수닷타 장자는 마가다국 왕사성에 있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귀의하였다. 그는 코살라국 제타 태자에게 부처님과 승가가 머물며 수행할 거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제타숲을 팔 것을 간청했다. “이 숲을 황금으로 덮을 수 있다면 팔겠다”는 말을 들은 수닷타 장자는 제타 태자의 제안을 실천하였다. 제타숲을 황금으로 덮은 신심에 감동한 태자는 숲을 팔았고, 수닷타 장자는 땅을 승단에 보시할 수 있었다. 제타숲에 있는 나무는 제타 태자가 보시하였다.

수닷타 수투파의 바로 건너편에



수닷타 장자가 승단에 기증한 기원정사의 터

[사진=법보신문 제공]

는 앙굴리말라 수투파가 있다. 앙굴리말라는 ‘손가락 귀신’이라는 뜻이다. 앙굴리말라는 사람 100명을 죽여 죽은 사람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걸면 깨달음을 얻는다는 스승의 가르침에 속아 잘못된 수행을 하고 있었다. 앙굴리말라가 99명을 죽이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 찾아온 어머니를 죽이려고 달려가다 부처님을 만났다.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귀의하여 기원정사에서 출가하였다.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수행정진하였으나 탁발을 나갔다가 살해당한 피해자 가족들이 던진 돌에 죽음을 맞이했다고 전한다.

앙굴리말라가 죽은 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수행자들 사이에 토론이 벌어졌는데, 부처님은 그가 열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놀란 수행자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고, 부처님께서 많은 악을 행한 이후에도 사람은 여전히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



부처님이 머무셨다는 전각 간다쿠티. 코살라이 파세나디왕이 불상을 봉안하고 예배해 여래향실로도 불린다.



기원정사를 순례하는 스리랑가 불자들

씀하셨다.

앙굴리말라 수투파를 참배하고 기원정사로 향하였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서 25 안거를 보냈는데 그 중 19 안거를 기원정사에서 보냈다. 기원정사에 도착하여 먼저 부처님께서 19 안거를 하셨던 장소인 여

래향실에서 종단 의궤법으로 불공을 하였다. 영축산 정상의 법단도 여래향실이었던 것이 기억나 알아보니 ‘간다꾸피’, 즉 ‘향기가 나는 작은 집’이었다. 이것을 ‘여래가 머무신 향기 나는 작은 집’이란 뜻으로 한역한 것이 ‘여래향실’이다. 불공 후 부처님과 수행자들이 먹었던 우물터와 여러 수행처를 둘러보았다.

기원정사는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설법한 장소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금강경』은 기원전 1세기 경에 제작된 대승경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기원정사에서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직접 설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금강경』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서 천이백오십 인의 비구와 함께 계시었다.”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볼 때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설법하셨던 내용을 후대에 기록으로 남겼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원정사 참배를 마치고 렉나우로 향했다.

남해 정사(법성사 주교)



풍류도와 밀교사상

삼재는 새롭게 봐야 할 한민족의 인간 가치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그 기록 대부분은 <삼국유사> 기록이나 <위서> 같은 중국의 기록에서 자취를 파악하고 있다. 한국에 고조선을 비롯한 상고의 시대가 있지만 이에 대한 기록이 전무한 이유는 조선이 명나라를 사대하면서 정부에서 상고사 문건을 의도적으로 불태운 것에서 비롯된다. 특히 세조는 왕위를 찬탈했기 때문에 명나라에 인정받기 위해 수차례 어명을 내려 치밀하게 상고사의 흔적을 지웠다.

현대 사학자들이 요하 지역의 무덤을 발굴하면서 끊임없이 출토되는 부장물과 무덤 주인공의 유전자 지도는 이들의 주인공이 동이족이며, 이들 문명을 아시아 문명의 발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유력해지고 있다. 한국의 사학자 사이에서는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지만, 갑골문과 유전자 분석을 더한 체계적 연구는 동아시아를 실질적으로 지배해 왔던 동이족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불교와 밀교를 깔아놓은 지면에 서 뜬금없이 동이족과 상고사를 들추는 것은 동이족의 문화와 한국 불교 문화 형성에 적지 않은 간접 현상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 한 예로 신라 시대 유행했던 풍류도의 근간으로 천인지 삼재(三才) 사상이 있으며, 이것은 신라 화랑도 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무덤이나 백제의 향로에서 보이듯 동이족이 공유했던 보편적 민족사상이다. 삼재 사상의 다른 기원은 동이족 무덤에서 발견되는 갑골문이다. 갑골문을 연구한 학자들은 갑골문이 하늘의 뜻을 읽기 위한 점사의 기능에서 출발했으며, 동이족의 왕들이 점복을 통해 하늘의 뜻을 묻고 인간과



청허 휴정(淸虛 休靜, 1520~1604)의 진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신수15480. 공공누리 저작물.

대지의 일을 결정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동이족은 하늘·인간·땅의 유기적 관계를 중시했으며, 불교가 들어왔을 때 삼국은 삼재 사상과 불교의 융합이라는 동일한 현상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삼국유사>에는 신라와 불교의 오랜 인연을 보여주는 불국(佛國) 사상과 땅에서 솟아난 사방불(四方佛)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달달 박박과 노힐부득의 경우는 산 채로 성불하여 정도에 왕생했는데, 신라인이 살아서 왕생하는 현실적 왕생을 선택한 것은 전통적 삼재 사상이 불교 신앙의 틀 속에서 해석된 중첩 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다. 신라 사회를 통해 구현된 삼재 사상의 다른 발현은 풍류도이다. 풍류는 하늘이라는 무형의 가치와 대지라는 유형의 가치를 인간의 정신과 육신에서 실현하려는 사유체계이다. 풍류는 전통사상과 불교가 결합해 현실의 정도, 혹은 불국으로서 국가와 인간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선밀쌍수를 기고해 오면서 선불

교가 지닌 진정한 가치가 무위진인의 틀 속에서 깨어있는 인간 실존의 구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분별과 무명으로 진실과 거리를 둔 미혹을 끊고, 진리가 서 있는 인간을 직시하는 것이 선과 활인검의 본면목이다. 인간이 죽은 자리에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선과 밀교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 인간 실존의 진리를 지적한 것이 바로 즉신 성불이고 만다라이고 다라니이다. 다라니는 선문의 수행을 돕기 위해 장애를 제거하는 정도의 부수적 교재가 아니라, 활인검의 날을 더 날카롭게 활용할 제불의 방편이다. 선과 밀교, 삼재 사상은 한민족 고유의 혈통에서 새롭게 보아야 할 인간 가치이다. 하늘의 무형과 대지의 유형, 그리고 인간의 중도실상의 깨달음을 보아야 한다.

한국 선맥의 큰 스승인 서산대사 청허 휴정(淸虛休靜, 1520~1604)은 남원 땅을 지나다가 닭이 화를 치며 길게 우짖는 소리를 듣고서 대오하였다. 청허 휴정은 <삼가귀감(三家龜鑑)>을 남겼다. 상중하

세 권으로 구성된 책은 제목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유교와 도교와 불교로 구분하여 각각의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형식이다. 불교편이 <선가귀감(禪家龜鑑)>에 해당한다. 나머지 <장자> 및 <도덕경>의 내용에 유교를 덧붙여 삼교를 회통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청허 휴정은 삼재에 기반을 둔 선 철학을 <선가귀감>을 비롯한 문집에서 보여준다.

유무 중도의 인간 실존을 성철 스님은 중도상(中道床)이라 하였다. 성철 스님은 평생 아비라기도를 권장하였다. 아비라기도는 밀교수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로자나여래의 법신을 수행자와 동일시하는 밀교 수행이다. 성급히 말하면 인간의 실존을 분별심으로부터 구해하늘, 대지의 현실과 연기하는 인간 행복의 실천 원리가 선과 밀교, 삼재 사상을 관통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삼재 사상의 원형을 요하 문명과 동이족의 시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고조선 이후 민족정신에서 그 본류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하늘에 지낸 제사를 유형의 제단과 의식으로 실체화한 이력이 선덕여왕 시대 사천왕사의 문두루법을 가깝게 만든 요인이라 생각한다. 비전공자로서 풍류도와 연계해 삼재 사상을 약간 들여다본 것만 가지고 소개한 것은 추천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동이족 고조선이 남긴 하늘과 의례의 종교문화는 <삼국유사>에서 보이듯 불교와 의례, 선으로 전개되어 고려 시대 동아시아 밀교 대국으로 거듭나는 동기가 되었다. 민족 정체성을 정의하는 또 다른 축에 밀교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후학에 의해 이루어지길 바란다.

정성준 | 자유기고가



총지로 여는살®
무상 無常

남한강 꽃잎이 주는 불법의 향기

한 달에 한 번 남한강을 돌아보고
웁니다. 생태모니터링이라는 이름
으로 강변 서너 곳을 답사한 지 제법
여러 해 되었습니다.

3월에는 마른 풀잎 사이로 돌아나
는 쭉, 냉이, 꽃다지 등 온갖 새싹이
보이고, 4월이 되면 버드나무, 제비
꽃, 냉이, 꽃다지 등 부지런한 꽃이
피고, 5월에는 고들빼기, 씀바귀, 갈
퀴나물, 꽃마리와 사초들이 푸른 잎
위나 사이로 피어납니다. 6월에는
족제비싸리, 지칭개, 소루쟁이, 뱀차
즈기(곰보배추)가, 7월에는 칙, 메
꽃, 기생초, 금계국이, 8월에는 두
릅, 자귀풀, 망초, 익모초와 달맞이
등 흰칠한 키의 꽃대가 솟아올라 여
러 송이의 꽃을 피워냅니다. 9월이
면 갈대와 억새도 이삭을 틔우고, 돌
콩과 새팔, 왕고들빼기와 쭉, 여뀌도
꽃 피울 것입니다.

키 작은 식물은 작은 대로, 키 큰
식물은 큰 대로, 부지런한 식물은 부
지런하게, 여유로운 식물은 여유롭
게, 어떤 식물은 잠깐, 또 어떤 식물
은 오랫동안, 자기에게 알맞은 햇빛
과 온도와 바람과 비와 흙에 맞춰 각
자의 리듬에 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
를 맺고, 주변과 어울리며 살아갑니
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봄부터 가을
까지, 사실은 얼음이 녹고부터 서리
가 내릴 때까지 항상 푸른 잎과 온갖
꽃이 번갈아 보이는 풍요로운 세계
입니다.

같은 장소를 몇 년째 가다 보니 같
은 계절, 같은 장소인데도 어떤 해에
는 박주가리가, 또 어떤 해에는 미국
쭉부쟁이가, 또 어떤 해에는 가시박
이, 또 다른 해에는 개망초가 여기저
기 눈에 띄게 번성하는 모습이 보였
습니다. 아마도 강수량이나 온도의
차이가 어떤 식물에 더 유리하게 작
용했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우리
가 모르는 자기들의 언어로, 순서를



출처: 경기도 여주시 남한강 풍경, 공공누리사이트 <https://www.kogl.or.kr>

정해서 나름대로 기회를 주고받는
지도 모를 일입니다.

인더스 강변에 온갖 신을 섬기며
복을 빌고 살던 사람들 속에서, 세상
의 모든 것은 변화하며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존재일 뿐 영원한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최고의 진리
를 깨달아 선포하신 위대한 성인이
출현하셨다.

또 그 법이 한때는 상좌부로, 또
한때는 대승으로 세상에 유통되고,
500년 뒤에는 중국 땅으로 옮겨가
서 선불교가 되고, 티베트고원에서
는 밀교가 되고, 한반도에 와서는 호
국불교가 되어 번성하다가, 인도는
인도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다시 원
래 삶의 모습으로 익숙하게 되돌아
가는 것도, 햇빛과 온도와 물과 땅에
따른 당연한 변화의 리듬일 수도 있
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한국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으로 풍요로워 세계인이 부
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태어
나는 사람마다 얼굴은 준수하고 키
는 흰칠하며 몸매는 단정하여 노래
하고 춤추는 젊은이들을 세상의 모
든 사람이 따라 합니다. 최근에 유행
하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라는 애니메이션은 케이팝이라는
이름과 우리말 몇 구절 들어간 노래
만으로 세계인의 관심과 인기를 얻
고, 까치호랑이와 갓을 인쇄한 캐릭
터 상품(소위 굿즈)을 사려는 사람
들의 줄이 국립중앙박물관 앞을 가
득 메웠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 흥행의 해
택을 미국과 일본의 기획사와 제작
사가 다 차지하고 있다는데, 세계인
의 관심 분야를 포착하고 적당한 이
야기와 적절한 인물을 설정하여 노

래와 춤으로 꾸며낸 아이디어 제공
자가 그들이기 때문이겠지요. 케이
팝인데, 우리 문화의 산물인데, 왜
우리는 소비자요만 남고, 기획과 생
산의 주체는 미국과 일본의 투자자
들인지, 만약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
의 문화와 관심사를 가지고 기획하
고 생산하는 주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
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여 끝없이 변화
하는 중에, 우리는 무엇을 집착하여
자유를 얻지 못하고, 세상 사람이 모
두 부러워하는 나라에 살면서 세상
누구보다 불안해하며, 세상에서 가
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을
한탄하는지 깊이 관찰하여, 모든 장
애를 바로 뛰어넘어 활력과 희망을
되찾는 총지종도가 되기를 서원합
니다. 옴마니반메흠.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법회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1월 첫째 주 7일간
중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중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신년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한다.

상반기,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사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한다.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 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 흠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한다.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한다.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한다.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 원 명	우편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통 리 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수 련 원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88	(043)833-813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서울경인교구

관 성 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홍파동)	(02)736-0950
말 인 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 천 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 룡 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 법 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 지 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미아동)	(02)983-1492
정 심 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상봉동)	(02)491-6888
지 인 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 지 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 보 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 황 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 정 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 국 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중 원 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이평리)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개 천 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 화 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양월리)	(054)761-2466
국 광 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 음 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성내동)	(054)333-0526
선 립 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중성리)	(054)261-0310
수 계 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다경길36-19 (하구리)	(054)745-5207
수 인 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 천 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 석 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 음 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 향 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도남동)	(055)644-5375
덕 화 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 행 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 성 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 201호(대영아르피나)	(051)468-7164
삼 밀 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 화 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 보 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 천 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 상 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7길 7-3 (금산리)	(055)352-8132
자 석 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 각 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 음 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 해 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다르마_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종조법설집
제 3장 잠언편 P.200

이타^{利他}가 위대한 자리^{自利}

대중을 이롭게 하면 그 사례로서 자기도
이로우며 완전한 장원한 이익이고
화평^{和平}과 은애^{恩愛}로 살고 금세와 내생에
복락이 무궁하다.



지장 스님의 향유 _18
마야
__ 지장 스님



마음챙김 메커니즘 _20
마음챙김 ②
__ 임진수



문화유산 해설 _23
'화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
__ 편집실



지혜의 뜨락 _25
상과 허상
__ 편집실



생각의 열매 _28
무지로부터의 탈피
__ 김천



걷는 자의 기쁨 _30
경북 포항 내연산
__ 박성기

재가 불자의 오계 五戒

오계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깨달음의 근처에나 갈 수 있겠는가?**불살생(不殺生)**

살아 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

불투도(不偷盜)

도둑질하지 않는다.

불사음(不邪淫)아내나 남편이 아닌 자와 음탕한
짓을 하지 않는다.**불망어(不妄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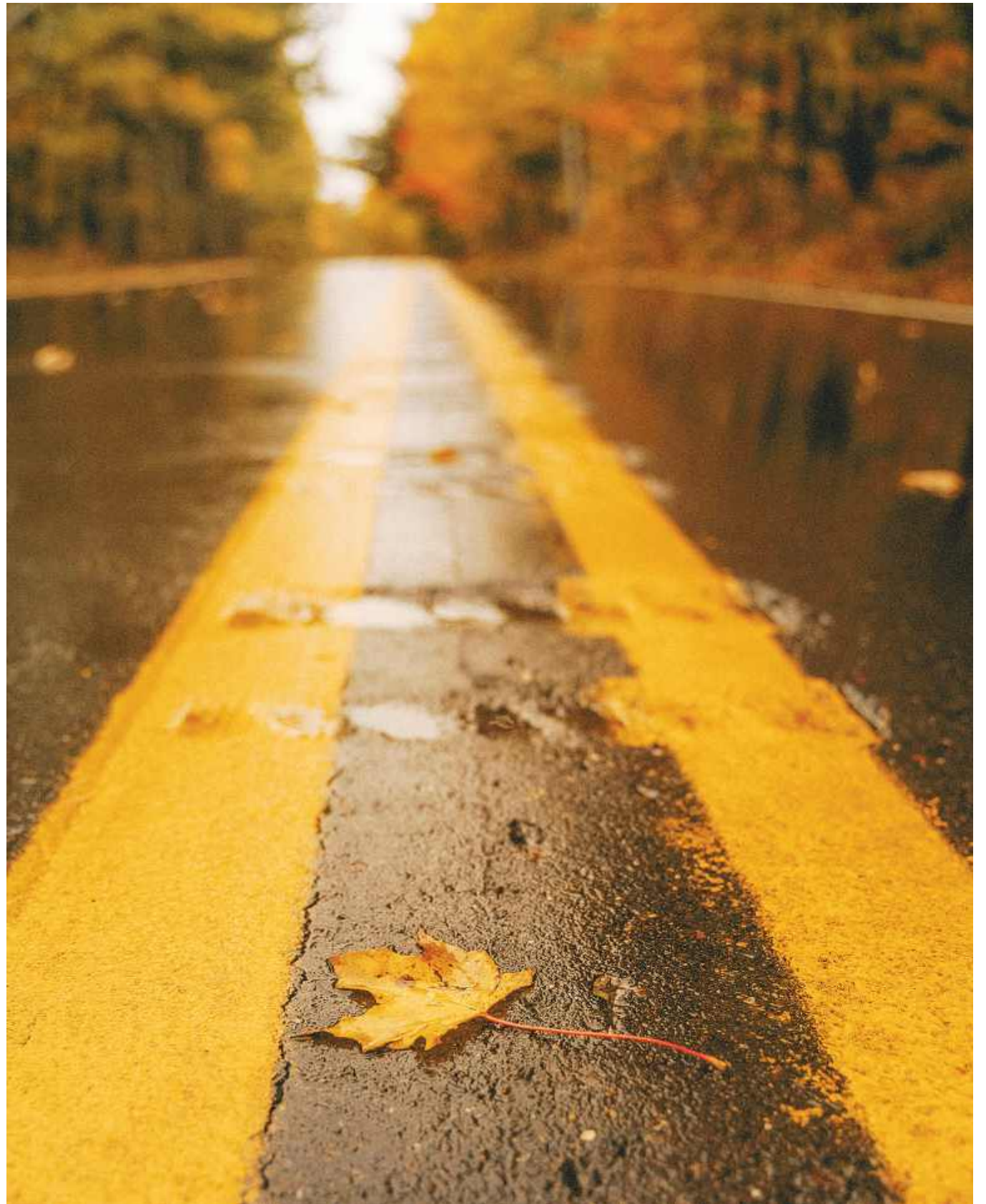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불음주(不飲酒)

술을 마시지 않는다.

계는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다. 특히 재가자의 오계는 불자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무이다. 그러나 많은 불자는 오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불자라고 하면서도 오계 준수를 가벼이 여기면서 오히려 불교의 심오한 경지를 추구하는 수행법만 찾아다니고, 불교를 관념적으로 생각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오계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깨달음의 근처에나 갈 수 있겠는가?

오계는 불교의 계 가운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며, 이것 없이는 불교의 수행은 한 걸음도 진전이 없을 것이다. 또한 오계는 불제자가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윤리 덕목이다. 사회의 온갖 분란도 이러한 오계의 준수가 원활하지 못한 데서 생긴다. 살인, 강도, 강간, 횡령, 절도, 음주 사고, 마약 밀매, 뇌물 수수, 도박 등 우리 주위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 대부분은 오계를 준수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이 오계는 출가자는 물론 불제자라면 누구든 반드시 엄수해야 할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실천 항목이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오계를 수지하면서 과거처럼 좁은 의미의 단순한 계 조항을 준수한다고 자만



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된다. 사회가 변화하고 생활환경이 급격히 변했기 때문에 오계에 대해서도 더 폭넓고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다.

계를 지키는 것은 한 개인의 완성

을 통하여 궁극적인 해탈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계를 지키는 그 자체만으로 만족한다면 계 제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흔히 율사라고 하는 출가자 중에는 오히려 인간미가 부

족하고 지혜와 자비심이 부족하여 옆에 가기 두려운 이가 더러 있다. 그런 것은 지계에 대한 경직된 사고방식이 불러 온 폐단이다. 계는 지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계를 통하여 우리의 심신을 맑게 하고 안정

시키며 지혜의 길로 나아가는 바탕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출가자도 마찬가지로 재가불자는 계를 지키에 있어서 대승의 보살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계를 통하여 자신의 인격 연마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지만, 재가불자는 사회생활을 하므로 중생 가운데에서 불법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살생하지 않는 것은 다른 생명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며, 훔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고, 사음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평화를 해하지 않는 것이며,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명예와 재산에 피해

를 주지 않는 것이고, 술을 마셔 실수하지 않는 것은 가족과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된다.

이처럼 오계의 근본정신은 첫째는 자신을 지켜 성불에 이르는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나 계를 지키므로써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다.

재가불자가 오계를 통하여 아름답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이 두 번째 미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오계만이라도 지켜 나가야겠지만,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이것이 일반사회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방편의 하나가 우리 스스로 오계를 수지하여 사회

의 모범이 됨으로써, 모든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아끼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불교의 오계는 불교인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지켜야 할 생활 규범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불교의 모든 교리가 그렇듯이 오계도 어느 한정된 시간이나 지역에만 통용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 보편타당한 윤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가불자가 오계를 지키는 것은 불교 실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며, 오계의 실천이 없이 불제자임을 내세우는 것은 자기기만이라고 할 수 있다.

재가불자가 스스로 오계를 잘 지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만, 오계는 인류의 보편타당한 윤

리 덕목이기도 하므로 불자는 이를 일반사회에까지 확대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더구나 재가불자는 생활 가운데에서 불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윤리를 준수하고 사회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오계를 알리고 선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오계 준수와 이의 사회적 확대는 불법 실천의 기본이면서 불자가 부처님의 은혜와 중생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된다. 오계 제정의 근본 취지를 잃지 않으면서 현대사회에 맞게 오계를 폭넓게 해석하고 실천함으로써 불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이를 이웃에 확대해나갈 때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불국정토가 이 아름다운 별 지구에 건설될 수 있을 것이다.

편집실

경전에서 찾은 지혜

“시간이 지나면 과보는 어김없이 나타난다”

아나타뻔디까는 황금 5,500만 냡을 들여서 기원정사를 지어 부처님께 헌납한 사왓티의 부호였습니다. 그는 베푸는 것을 좋아했고, 부처님께 아주 헌신적이었으며, 불법의 진리를 열심히 수행하는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그는 매일 세 차례 기원정사를 찾아가 부처님께 공경 예배를 올렸습니다. 아침에는 잘 쏘 쌀죽을 가지고 가 부처님께 올렸고, 점심에는 그날에 알맞은 음식을 준비하여 부처님께 공양했으며, 저녁에는 꽃이나 향, 향수 등을 부처님께 올리고 설법을 들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이라도 빈손으로 기원정사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같이 오랜 세월을 두고 보시했기 때문에 마침내 가난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수행의 경지가 수다원과에 이른 불자였으므로, 부처님과 다르마에 대한 신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해진 다음에도 여전히 매일 부처님을 찾아

뵈고 있었는데, 이제는 가지고 갈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다 못해 자기 논에서 흙을 파서 기원정사의 꽃나무 주변에 쏟아 붓고 오는 등 보시에 철저했습니다.

그의 집 문을 지키는 신장(神將)이 사정을 아주 딱하게 여겨 아나타뻔디까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집 문을 지키는 신장입니다. 당신은 모든 재산을 수행자 고타마(부처님)에게 바쳤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았으며, 이제 아주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고타마에게 보시하지 마시고, 당신의 장래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부자가 되십시오.”

이런 말을 들은 아나타뻔디까는 버릇없는 소리를 함부로 한다고 크게 꾸짖고 그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나타뻔디까는 이미 수다원과의 경지에 이른 성자였고, 또 그 가족도 성자였습니다. 그래서 신장으로서의 그들의 성

스러운 힘에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신장은 결국 살던 곳에서 떠나갈 수 밖에는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신장은 막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석천왕에게 가서 자기 사정을 하소연했습니다. 그러자 제석천왕이 말했습니다.

“너는 먼저 아나타뻔디까를 위해 좋은 일을 하도록 하여라. 그런 다음 용서를 빌면 될 것이다.”

“제가 무슨 방법으로 주인을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나타뻔디까는 1,800만 냡의 황금을 어느 장사꾼에게 빌려준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장사꾼은 아직 그것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그것을 네가 받아서 돌려주어라. 그리고 아나타뻔디까의 조상이 또 다른 1,800만 냡을 땅에 묻어 둔 일이 있었는데, 그 황금은 홍수에 떠내려가서 지금은 어느 브라흐만에게 가 있다. 또한 주인이 없는 황금 1,800만 냡이 바닷속에 있으니 네 신통력으로 그것을 모두 찾아서 아나타뻔디까의 창고에 가득 채워 놓도록 해라. 네가 그같이 해놓고 빌면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신장은 제석천왕이 말한 대로 일을 다 처리했고, 아나타뻔디까는 다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신장은 자기 주인인 아나타뻔디까에게 제석천왕

의 충고를 받고 자기가 이같이 재산을 찾아드린 것이라고 사실을 고했습니다. 그러자 아나타뻔디까는 놀라, 그 신장을 데리고 부처님께 가서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설법하셨습니다.

“악한 사람도 그 악의 과보인 고통을 오래 겪지 않는 경우가 있느니라. 그리고 착한 사람도 그 선의 과보인 행복을 오래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느니라. 그렇지만 그것을 일시적인 현상일 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과보는 어김없이 나타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계송 두 편을 읊으시었다.

설사 악한 자라 하더라도
아직 악행의 과보가 나타나지 않아
행복을 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악업의 결과가 나타날 때
그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리.

비록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직 선행의 과보가 나타나지 않아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업의 결과가 나타날 때
그는 크나큰 이익을 즐기리.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아나타뻔디까의 집 대문을 지키던 신장은 수다원과를 성취하였습니다. 『중아함경』

지
장
스
님
의
향
유

마야 māyā

“자네가 그렇게도 죽음을 슬퍼했던 가족들은 대체 누구인가?”



하인리히 짐머가 쓴 <인도의 신화와 예술>이라는 책에 보면 ‘나라다’라는 한 수행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의 원본은 <맛시아 뿌라나(Matsya Purāṇa)>라는 인도 설화 책에 실려 있으며 여러 버전이 전해옵니다.

옛날 인도에 나라다라고 하는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극 정성으로 고행하며 신을 경배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수행과 신앙에 감탄한 비쉬누 신이 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나라다는 ‘마야’의 진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지요. 은자는 그것 말고 부귀와 건강, 쾌락, 성공, 자식 등등을 제안했는데요, 나라다는 자기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며 마야의 가르침을 꼭 체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인도말인 마야(māyā)는 흔히 꿈, 환상, 허깨비, 착각 등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 말고도 상상, 창조, 계획 등 오늘날 픽션의 의미도 있습니다. 석가모니 붓다의 생모 이름도 마야라고 알려져 있듯이, 마야라는 개념은 인도인에게 아주 깊은 차원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비쉬누 신은 나라다를 태양이 이글거리는 광야로 데려가 함께 걸었습니다.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을 때 저 멀리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작은 벼랑의 그늘 밑에서 쉬면서 비쉬누신은 나라다에게 “가서 물을 얻어 오라.”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라다는 공손히 대답하고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작은 마을에 도착한 나라다는 첫 번째 집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정말로 아름다운 소녀를 보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눈을 보는 순간 나라다는 넋을 잃게 되고, 자신이 그곳에 왜 왔는지를 잊게 되었습니다.

착하고 순수한 소녀와 그녀의 가족은 그를 마치 오래 함께 살았던 가족처럼 반겼으며, 아무도 그에게 왜 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나라다는 환대에 감격하여 그들과 함께 머무르며 아주 편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그 가족의 일원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그는 소녀의 부친에게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청합니다. 그 집안 사람 모두가 환영하였고, 결국 그는 그 가족의 일원이 되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1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세 자녀를 두었고, 재산도 물려받았습니다. 12번째 되던 해의 장마철에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냇물이 불어 넘쳐 온 마을이 잠기고, 어둠 속에서 집과 가족이 쓸려 떠내려갔습니다. 그는 간신히 가족의 몸만 구했습니다. 막내는 어깨에 태우고 부인과 다른 자녀를 잡고 거센 물길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러다 그만 미끄러운 진창에 발이 빠져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어깨에 태우고 있던 막내가 소용돌이치는 물길 속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필사적으로 막내를 잡으려 했지만, 그사이에 부인과 나머지 아이들도 급류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그 자신도 결국에는 거센 물살에 휩쓸려 이리저리 곤두박질치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강가의 벼랑에 떠밀려 와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그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물은 어디 있느냐? 반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보니 사막과 서 있는 비취누신이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다른 버전에서는 “자네가 그렇게도 죽음을 슬퍼했던 가족은 대체 누구인가?”라고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이 설화를 보면 김만중의 <구운몽>과 영화 <매트릭스>가 떠오릅니다. 이들 작품은 꿈속에서 겪은 어떤 체험이 깨달음을 가져오고, 다시 그 꿈에서 깨는 것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것이 기본 서사입니다.

인도인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넓고 높게 보는 인식입니다. 이런 크고 높은 인식의 눈으로 현재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한낱 꿈처럼, 마야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인은 현실을

꿈이나 착각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창조된 세계로 바라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은 그저 상상 속에만 존재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 상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상상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이런 자발적 창작의 결과입니다. 그것 또한 마야의 힘이고 진리입니다.

영화는 수많은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사진들이 빠르게 움직이면 마치 화면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화의 내용도 만들어진 것이지만 영화라는, 즉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 화면 또한 착각입니다. 그러나 영화에 몰입하고 있는 동안 그런 착각이 우리에게 현실이 됩니다. 순간순간 사진이 모여 영화가 만들어지듯, 순간순간의 인식이 모여 하나의 흐름으로 인식될 때 그것은 내가 되고, 내 가족이 되고, 내 삶이 됩니다. 잘 살펴보면 느낌과 감정, 생각 등이 모두 마야 아닌 것이 없습니다.

실제의 두려움보다는 두렵다는 생각이 더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요즘 많은 사람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의 원인은 결국 사람들 스스로가 만든 부정적인 마야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마야의 세계를 떠나지는 못하지만, 마야의 속성을 잘 알아차리면서 사는 것이 삶의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죽은 가족이 누구였을까에 대한 답을 찾던 나라다는 마야에 대한 체험으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가 체험한 마야를 지금 이 순간, 우리 또한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라다처럼 곧 깨달음을 얻겠지요. 아니면 물을 찾으러 갔다가 감각적 즐거움에 눈멀어 왜 왔는지 깜박 잊고 사는 상태로 영영 꿈꾸며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장 스님

청주 용화사 교육원장

산책

우리는 서로에게

문 태 준
시인
BBS불교방송 PD

우리는 서로에게
환한 등불
남을 온기
움직이는 별
멀리 가는 날개
여러 계절 가꾼 정원
뿌리에게는 부드러운 토양
풀에게는 풀여치
가을에게는 갈잎
귀엣말처럼 눈송이가 내리는 저녁
서로의 바다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파도
고통의 구체적인 원인
날마다 석양
너무 큰 외투
우리는 서로에게
절반
그러나 이만큼은 다른 입장



마음챙김 ②

- 학문적인 의미(불교적 수행의 관점)

사마타와 위빠사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명상법

테라와다(Theravada) 불교라고 하는 상좌부불교, 즉 태국, 미얀마, 라오스, 스리랑카 등 동남아에 퍼져있는 남방불교에서 사용되는 ‘사띠(sati)’라는 용어는 영어로 ‘mindfulness’, ‘awareness’, ‘noting’, ‘attention’ 등으로 번역된다. 이것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마음챙김’, ‘알아차림’, ‘마음집중’, ‘주의’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마음챙김’이고, ‘mindfulness’이다.

마하야나(Mahāyāna) 불교라고 하는 대승불교, 즉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등 동북아에 퍼져있는 북방불

교에서는 이런 상좌부불교의 사띠에 대한 개념을 ‘념(念)’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왔다. ‘념(念)’은 불교의 기본 교리인 팔정도(八正道)에 있는 개념으로 정념(正念)이 이에 해당한다.

남방불교는 sati, 현대서양은 mindfulness, 우리나라는 마음챙김, 북방불교는 념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sati = mindfulness = 마음챙김 = 념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네 가지의 단어의 의미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그 수행법을 다르게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는 마음챙김이라는 단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받아들여지고 발전해 왔다. 남방불교의 sati가 현대서양으로 전해지면서 mindfulness라고 번역되었고, 이후 서구심리학은 mindfulness의 의미를 심리학적 개념으로 해석·발전시켰다. 그래서 현재 서구에서 사용하는 mindfulness의 의미엔 원래 남방불교의 sati의 개념과 서구심리학의 mindfulness의 개념이 혼재하게 되었다. 서양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이 단어가 수입되면서 ‘마음챙김’으로 번역되었고, 여기에 기존에 존재했던 북방불교의 개념인 ‘념’의 의미까지 더해지면서 현

재 우리가 사용하는 ‘마음챙김’이 되었다. 결국 ‘마음챙김’이라는 단어의 의미엔 *sati*, *mindfulness*, *념*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사띠의 개념에 대한 여러 의미

남방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인 사마타와 위빠사나 명상의 기본이 되는 개념이 바로 사띠(*sati*)이다. 문헌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사띠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하다고 한다. 세부적이기도 하고 포괄적이기도 하다. 그 시대와 수행 환경에 따라 다양한 적용법과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불교적인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sati*를 중심으로 바라본 마음챙김, 즉 남방 상좌부불교의 관점이다. 남방불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명상법은 사마타와 위빠사나이다. 이런 명상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sati*이다. 이 사띠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 1. 마나시까라(*Manasikāra*, *attention*): 대상에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 주의기울임[作意]이다.
- 2. 사띠(*Sati*, *Mindfulness*): 이미

대상을 관찰하고 있는 상태, 주시, 마음챙김[念]이다.

3. 사마디(*Samādhi*, *Concentration*): 마음을 모으는 방법(집중)과 마음이 깊게 모인 상태, 집중[定]이다.

4. 삼빠잔나(*Sampajañña*, *Awareness/Clear Comprehension*): 대상을 분명히 파악하는 것, 알아차림, 분명한 앎[正知]이다.

5. 뻘냐(*Paññā*, *Wisdom*): 무명(無明:*avijja*)에서 벗어나는 지혜[慧]다.

한편으로는 의도가 있는 ‘주의기울임’을 가지고 ‘마음 챙김’을 해서 ‘분명한 앎’을 갖게 되고 ‘지혜’를 이루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의기울임’을 통해 ‘집중’을 이뤄서 ‘지혜’를 이룬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 *sati*의 개념은 명상 과정 중에 일부 영역일 뿐이다. 여기에서 사띠는 삼빠잔나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현재 통용되고 있는 마음챙김의 의미는 ‘주의기울임’과 ‘집중’, 그리고 ‘분명한 앎’의 의미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念’을 중심으로 바라본 마음챙김, 북방 대승불교의 관점이다. 북방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마

음챙김을 여러 가지 의미로 나누는 것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마음챙김은 명상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로 이해된다.

즉, 일념(一念)을 만드는 과정으로 파악된다. 북방불교, 특히 선불교에서는 이런 과정 없이 바로 무념(無念) 들어가는 것을 선호한다. 명상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마저 마지막에는 버리려는 것이다. 화두(話頭)를 통해 일념(一念)을 만들고, 결국 일념을 버림으로써 무념을 얻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무념에 들어가기 전, 일념을 이루려는 마음상태가 *sati*와 비슷한 개념을 가진다.

그러므로 북방불교에서 바라보는 *sati*는 아래의 두 가지 의미, 모두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1. 알아차림(*awareness*):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 알아채는(깨닫는) 것
- 2. 마음챙김(*mindfulness*):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 유념(留念)하고 있는 상태

알아차림(*awareness*)은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앎의 상태, 즉 인식하고 지각하는 상태를 의미

하고, 마음챙김(*mindfulness*)은 대상을 놓치지 않고 붙어있는 상태, 즉 대상을 잊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설명하자면, 결국 사띠는 대상을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사띠를 가지고 사마타를 하고 위빠사나를 하는 것이다. 사띠의 대상이 집중일 때는 사마타(집중명상)가 되고, 대상이 사념처(신수심법: 감각, 감정, 생각, 진리)일 때 위빠사나(관찰명상)가 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사마타 명상과 위빠사나 명상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명상법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방식은 남방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학계에서 인식하는 대표적인 방식이라면, 두 번째 방식은 북방불교의 입장인 선불교에서 바라본 지(止:사마타)와 관(觀:위빠사나)의 관점의 사띠(念)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명상에 대한 설명 편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임진수

명상지도자협회 명상전문지도자
메디테이션 봄 명상센터 대표

담
마
빠
다

당상즉도 當相即道

도리에 맞게 살며
그릇된 것은 멀리하라.
이 길을 따르는 자는
이생에서나 내생에서
모두 행복하리라.



화령 정사

철학박사
법천사 주교

불자로서 도리에 맞게 산다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릇된 것을 멀리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가져오는 것을 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불교는 믿기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바로 눈앞의 현실이 곧 진리입니다. 이것을 당상즉도(當相即道)라고 합니다. 나쁜 짓을 하면 괴로움을 당할 것이고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과보가 있다는 것이 바로 진리의 당상즉도이며, 이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름 없는 나

메아리를 만들어낸 중심의 소리에,
그림자를 드리운 본체의 모양에...

만약 실상 없는 이름이 있을 수 있다면
소리가 없는데 메아리가 있는 격이고,
형체가 없는데 그림자가 있는 격이니,
이는 필시 있기 어려운 이치이다.

如使無實而可以有名，則是無聲而可以有響，無形而可以有影，此必無之理也。
여사무실이가이유명, 즉시무성이가이유향, 무형이가이유영, 차필무지리야.

- 정종로(鄭宗魯, 1738~1816), <입재집(立齋集)> '허명변(虛名辨)' 중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허울의 메아리에 둘러싸여 생을 허비하는 기분이 든다면, '이름 없는 나'를 소환해야 하는 때이다. 내 안에 존재함을 스스로 분명히 느끼기에, '진짜 나'에는 이름 붙일 필요가 없다. 이름 없는 혼자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나를 잃어버린 듯한 기분에서 회복하는 방법이다. 애써 타인에게 설명할 필요 없는 혼자 돌아와 고요해지면 비로소 마주할 수 있는 나만이 아는 나. 그런 내 안의 소리를 정확히 들을수록 삶의 밀도는 높아진다.

여기저기에서 나를 호명하는 메아리가 종종 따갑거나 무겁게 들리기도 한다. 붙여진 이름에는 무게가 지워지고 이름 주변으로 허황한 명성이나 오해가 모여들기 마련이다. 그러니 학문을 소명으로 삼은 이에게 이름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름이 알려지길 원한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려고 학문하는 사람에게 공부는 수행이다.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도 공부는 완전할 수 없고 늘 갈증을 느끼며 배우면서 살아갈 뿐이다. 타인의 입에 의해 허상의 이름이 불리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자아를 굳건히 세우고자 애쓰는 삶. 조선의 학자 정종로(鄭宗魯, 1738~1816) 역시 그런 삶을 살고자 했다.

정종로는 '허명변(虛名辨)'에서 실



상 없는 이름은 소리 없는 메아리나 형체 없는 그림자와 같다면, 자신의 이름 역시도 실상 없이 알려졌다고 토로했다. 옛 선비의 이름은 헛되이 붙여지지 않았는데, 반면 정종로

자신은 공부가 영성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학문에 뜻을 둔 문장가로 자신을 지목했다며 한탄한 것이다. 또 다른 글 '자책(自責)'에서는, 시문(詩文)에 부족함은 부끄러운 일이 아

니더라도 학문과 도(道)에서 실질적 알맹이가 없는 것은 큰 죄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정종로의 자조적 고백은 곧 그가 공부의 여정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이름이 알려져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떼떽한 내면세계를 꾸려가는 것이었음을 시사한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울린 이름으로부터 이름의 주인은 소외되기 십상이다. 나다운 나와 괴리된 생활에선 진실한 기쁨을 누리기 어렵다. 어쩌면 껍데기에 불과한 이름이다. 이름을 벗어버리면 드러나는 민낯의 '이름 없는 나'와 화해한 삶을 살고 싶어서 공부의 길을 택했다. 선배 학자 정종로의 '허명변'이 각별한 의미로 와닿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부족한 나의 면모를 가꾸는 학문의 나날 위에서 이름이라는 포장지 없이도 결연할 수 있는 삶을 지향한다. 메아리보다는 메아리를 만들어낸 중심의 소리에, 그림자보다는 그림자를 드리운 본체의 모양에 마음을 쏟아 다듬고자 한다. 그렇게 갈고 닦은 진짜의 나를 스스로 제일 좋아하고 싶다.

출처=한국고전번역원

최 다 정

<한자 줍기>

<시가 된 미래에서> 저자

문화유산해설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

약사불(藥師佛)은 아직 부처가 되지 않은 보살이었을 때 12가지의 소원을 세웠습니다. 아픈 자의 질병을 치유하고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하게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랐고, 반드시 그 바람을 이루리라 맹세했습니다. 약사불은 오랜 시간 쌓은 공덕으로 부처가 되었고, 간절했던 서원(誓願)으로 인해 병든 자들을 구원하는 부처로 오랜 시간 신앙되었습니다. 금동불, 석불, 마애불, 목조불 등 다양한 재료와 형태로 꾸준히 조성되었으며, 그의 모습은 보물(옛 지정번호 보물 제2012호)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처럼 불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보물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는 동방유리 광정도의 교주 약사불과 그의 두 협시보살을 그린 조선시대 불화입니다. 높이 60cm도 채 되지 않는 작은 적갈색 화면 위에 부처와 두 보살의 찬란한 모습이 섬세하면서도 화려한 금니로 그려져 있습니다.

보상화(寶相華)와 연꽃무늬로 장식된 높은 수미단 위에 금니로 섬세히 그려진 연꽃이 만개했고, 그 위로 약사불이 자리했습니다. 바탕재가 훼손되어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다리 위에 올린 왼손에는 약사불의 상징인 약함(藥盒)이 그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장대한 상체에 비해 약사불의 이목구비는 상대적으로 가늘고 섬세합니다. 뒤에서 적색을 칠해 은은히 색이 배어나게 했고, 앞에서는 피부 부분에 백색을 칠하고 다시 금니로 덮은 뒤 이목구비를 그렸습니다. 부처의 붉은 입술과 머리의 정상계주는 금색으로 가득한 화면에서 유일하게 붉은색을 뽐냅니다.

두 협시보살은 수미단 아래에 자리하여 부처를 향해 합장하고 있습니다. 삼족오(三足烏)가 그려진 보관을 쓴 보살은 태양처럼 빛나는 지혜로 중생을 교화한다는 일광보살이고, 절구 찌는 토끼가 그려진 보관을 쓴 보살은 달처럼 청정한 덕을 갖추었다는 월광보살입니다. 부처와 보살을 위아래로 구분한 2단 구도는 고려불화의 전통을 보여주고, 약사불의 높고 뾰족한 육계와 옷 주름 표현은 조선 전기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줍니다. 갈색의 공간을 가득 메운 금색 꽃과 구름만이 캄캄한 밤하늘의 별처럼 약사삼존이 자리한 아득한 공간을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 조선 1565년, 비단에 금니, 54.2×29.7cm, 보물, 덕수3324, 유수란 큐레이터 추천, 공공누리저작물.

최고 권력자 대왕대비,
불교계 대표 고승 나암 보우,
왕실 화원까지 모두
심혈 기울여 조성한 걸작

장엄(莊嚴)합니다.

작은 공간 안에 펼쳐진 부처의 금빛 세계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불화를 포함해 모두 400점의 화면에서 부처의 정토가 펼쳐졌습니다. 이 약사삼존을 그린 불화는 모두 100점이었습니다.

월광보살의 오른편과 화면 아래쪽에는 이와 동일한 불화가 얼마나 많이 조성되었는지 적혀 있습

니다.

이 불화는 1565년, 명종(明宗, 재위 1545~1567)의 어머니 문정왕후(文定王后, 1501~1565)가 회암사 중수 기념으로 발원하여 전국 사찰에 나누어 준 불화 400점 중 하나입니다. 문정왕후는 12세로 즉위한 아들 명종 대신 섭정하면서 정치적 권력을 쥐었고, 적극적으로 불교 중흥 정책을 취했습니다. 사라졌던 선종과 교종을 다시 세우고 승과(僧科)를 실시했으며 나암 보우(懶庵普雨)를 봉은사 주지로 임명하고 그와 함께 양주 회암사 중건을 도모했습니다.

문정왕후는 역불송유로 기억되는 조선시대에 불교를 중흥시켰던 몇 안 되는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과 재화가 있었기에 아들인 명종의 만수무강과 왕비의 임신, 왕손 생산을 기원하며 석가모니불·약사불·미륵불·아미타불을 그린 불화를 각각 금니로 50점, 채색화로 50점씩 모두 400점이나 동시에 조성했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 현재 6점만 전하고 있는데, 4점은 일본에, 1점은 미국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금니가 아닌 채색으로 그린 불화도 있습니다. 보물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는 유일하게 국내에 전하는 귀중한 불화입니다.

이 작품은 크기는 작지만 굵고 가는 선을 적절히 사용하여 채색 없이 필선만으로 약사불과 보살의 찬란한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유려하고 정교한 필선은 상당한 기량을 가진 화가가 불화를 그렸음을 알려줍니다. 화기(畵記)에 화가 이름까지는 적혀 있지 않아서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왕실 발원이었던 만큼 당시 활동하던 궁중 화원이 불사에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불화와 함께 조성된 다른 불화의 화기 마지막 부분에 '청평산인 나암(淸平山人 懶巖)'이라고 적혀 있어, 당시 문정왕후와 함께 불교 부흥을 이끌었던 나암 보우 역시 대불사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는 왕실 최고 권력자인 대왕대비, 불교계를 대표하는 고승 나암 보우, 그리고 왕실의 화원까지 모두 심혈을 기울여 조성한 기념비적 대작 불사의 한 조각입니다.

의식공간 정리정돈

사소한 풍경도 마음에 따라
슬픔이 되기도, 기쁨이 되기도 한다

인생살이에는 여러 이슈가 있다. 그런데 그 이슈들에 대한 나름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그다지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다가 수련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

“의식공간을 정리정돈하라.”

그런데 어떻게 정리정돈한단 말인가. 그것은 그런 이슈들을 바라보는 관점의 선택임을 깨우치는 데는 제법 시간이 필요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뒤돌아본다. 그저 막연히 남들 하는 식으로,

애매하고 모호하게, 때로는 앞뒤가 서로 모순되게 이력저력, 아니 비틀비틀 살아왔다. 남들이 하나까 나도 학교에 가고, 돈 벌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다. 이제 남은 일은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늙어가다 죽는다는 것인가.

스승이 내세관(來世觀)을 정리해 두라고 말씀하신다.

“내세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세 가지뿐이다. 첫째는 ‘모른다’이다. 모르면 믿는 일이 남았다. 그래서 두

번째 답은 ‘없다고 믿는다’가 되고, 세 번째 답은 ‘있다고 믿는다’가 될 것이다. 이 셋 중에서 무엇이 옳은가.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다. 그러면 그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 어떤 관점이 우리의 행복해탈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관점 선택의 기준,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복해탈’이다.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로 내버려두면 우리의 생은 모호하게 흘러가게 된다. 그리고 ‘없다’라고 믿는다면 허무하거나 급해진다. 금생에 무엇이든 다 성취하고 누려야 하나 조급증이 일어난다. 그러나 무슨 수로 ‘다’ 하겠는가. 결국 애쓸 것도 없다는 심리가 되고 일회적인 생은 되는 대로 소모된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 분명히 금생을 함부로 살 수는 없을 것이다. 금생을 엉망으로 살면 다음 생은 그 업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생이 있다고 믿는다면 지금까지 거쳐온 과거 생도 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우주 먼

지에서부터 거쳐온 의식 진화의 과정을 금생은 물론 다음 생에도 꾸준히 밟아가겠다는 마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있다고 믿는다’라는 관점을 선택하고 보니 이 존재는 무한히 새로운 차원을 열어가는 여정 속에 있는 진정 숭고한 존재로 떠오른다.

아, 이것이 관점 정리의 공덕이구나! 관점 정리, 그것은 인생의 주인이 되는 1번 작업이다.

비가 쏟아진다. 원추리에 매달린 잠자리 날개에 차돌 같은 물방울이 열린다. 잠자리가 측은하다고 보면 이 마음이 슬퍼진다. 그런데 잠자리의 무심한 인육바라밀을 바라보면 이 마음에 기전향의 기운이 차오른다.

유 소 립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한국여성민우회 편집실장

주간 <내일신문>, <미즈엔> 편집위원 역임

<녹색평론>에 시와 산문 발표 다수

저서 <신주쿠 시궁쥐 비둘기>, <퇴곡리 반딧불이> 등

그냥 돌아가시오

대표적 청백리로 조선 세종 때 우의정과 좌의정을 두루 거친 맹사성은 76살의 나이로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가 초야에 묻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맹사성은 허름한 차림으로 개천가에서 혼자 낚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선비가 맹사성에게 다가와서는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노인. 지금 건넌마을에 급한 일이 있는데 보다시피 내가 새 버선에다 새 도포를 입어서 개천을 건너기가 곤란하니 나를 업고 건너가 주시오. 그러면 오늘 낚시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돈은 주겠소.”

“난 노인이라 기운이 모자라지만, 어디 이리와 업히시오.”

맹사성은 끄끙대며 그 젊은 선비를 업고 개천을 건너면서 어딜 가는 중이냐고 물었습니다.

“맹사성 정승 대감이 나의 부친 친구이신데 이번 기회에 찾아뵙고 벼슬자리를 부탁하러 가는 길이요.”

그러자 맹사성이 웃으면서 젊은 선비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젊은 양반 헛수고하러 가지 마시고 그냥 지

금 돌아가시오.”

젊은 선비가 왜 그러냐고 묻자, 맹사성이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화들짝 놀란 젊은 선비는 멀리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그릇과 성공은 외모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의 됨됨이, 즉 마음으로 부터 비롯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됨됨이는 외적인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정확히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감성편지 2025. 8. 15>

지혜의 프락상과 허상

아름다움 뒤에 가려진 진짜 능력
- 헤디 라마의 이야기

심리학에서 인상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로 외모를 꼽는다. 눈에 금방 띄는 외모로 타인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잘생긴 외모는 호감을 느끼게 한다. 반대로 못생긴 외모는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 외모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매우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영화배우 헤디 라마 Hedy Lamarr
1930~40년대를 풍미한 할리우드 배우 헤디 라마(Hedy Lamarr)는 매우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다. 오스트리아가 모국인 그녀는 불행한 결혼 생활과 유대인 박해에서 벗어나려고 영국으로 탈출하는 기차를 탔는데, 그곳에서 미국 영화 제작사 대표를 만나 영국이 아닌 미국으로 가서 영화배우가 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여객선이 독일 잠수함 어뢰에 맞아 300여 명의 선량한 민간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서 전쟁채권 투여에 참가했다. 군인과 투자자를 위해 춤추고 선정적인 배역을 연기하면서 그녀가 판매한 막대한 전쟁채권은 연합군의 전쟁 자금이 되었다.

과학자 헤디 키슬러마키 Hedy KieslerMarkey
헤디는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독일 잠수함을 그대로 두면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되기에 독일 잠수함 어뢰를 능가하는 성능의 어뢰를 개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연구에 몰두했다. 헤디의 아이디어는 방해받지 않는 무선조종 어뢰였다. 헤디는 잠수함이 수중 무선 유도 어뢰를 발사할 때 적합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주파수 혼동을 일으키는 방법, 즉 주파수 도약 기술을 발명하여 1941



년 특허를 신청했다. 이 기술은 오늘날 무선통신 기술의 기초가 된 어마어마한 발명이었다.

영화배우 헤디 라마와 과학자 헤디 키슬러 마키는 이름이 같은 헤디라는 동명이인이 아니라 한 사람이다. 결혼 전 헤디의 성이 키슬러이고, 영화배우가 된 후 남편의 성씨가 마키다. 그런데 사람들은 헤디를 과학자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 따라서 그녀가 발명한 기술을 믿지 않았다. 그녀의 외모 때문이었다. 그녀의 아름다

운 외모는 그녀의 능력을 불신하게 했다.

헤디는 영화 촬영이라는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것을 실용화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했다. 물에 녹이면 탄산수가 되는 알약 개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욕소에서 쉽게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이동장치 등 그녀는 발명가로서도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헤디의 발명은 빛을 보지

못했다. 그녀의 특허 기술은 1950년대 후반부터 재조명됐다. 1957년 펜실베이니아 전자공학시스템국 기술자들이 헤디의 특허 기술을 보안 시스템에 응용했다. 헤디 라마의 도청방지 아이디어를 이용한 전화기로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총리가 통화했는데 이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전화 접속이다.

헤디는 44살에 영화계를 은퇴한 후 은둔생활을 했는데 1997년 CDMA 기본 원리를 발명한 공을 인정받아 미국 전자개척재단으로부터 ‘개척자 상’을 받았다. 이어 같은 해 발명가들의 오스카상이라 할 수 있는 ‘BULBIE 상’을 받은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 헤디는 이 상을 받고 3년 후인 2000년 8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2004년 독일은 헤디의 생일인 11월 9일을 발명가의 날로 정했고, 2014년 미국은 발명가 명예의 전당에 그녀의 이름을 올렸다.

헤디의 발명으로 데이터 전송과 이동통신 연결망, 더 나아가 인공위성, 휴대전화, 무선인터넷이 탄생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헤디 라마는 과학자로서 존중받고 기억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헤디의 외모를 보고 그녀를 영화배우로 규정짓고, 그녀의 또 다른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단 하나의 선택이 바로 편견이다. 빼어난 외모 때문에 편견 속에서 위대한 발명 기술이 빛을 보지 못했던 헤디 라마를 통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반성하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상(相)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허상(虛想)일 뿐이다. 편집실

살다 보면
좋은 어른

“받은 것이 많으니 되돌려드려야 할 것도 많다”

서울을 떠나 산 지 20년, 그 오랜 세월만큼이나 나는 서울과 아득히 떨어져 생전 서울 구경조차 못 해 본 사람처럼 어리바리해졌다. 피치 못할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 나들이를 해야 할 때면 며칠 전부터 전전긍긍, 마음이 무거워지고 몸이 먼저 지치는 듯한 기분이 들곤 했다. 그러니 불일을 마치기 무섭게 횡하니, 정말 빛의 속도로 ‘탈서울’을 감행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행은 전혀 달랐다. 그런 선입견을 말끔히 날려 버릴 정도로 좋은 어른을 만난 덕분이다. 두 시간 남짓, 취재를 위한 짧은 만남이었지만 좋은 어른을 통해 얻은 감동은 서울에 머무는 1박 2일 동안, 아니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내내 나를 행복하게 한다. 낯선 섬처럼 멀게만 느껴지던 서울도 한 걸음 가까워진 듯했다.

그분과의 인터뷰가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처음 취재 요청을 했을 때처럼 두 번째와 세 번째 통화에서도 그분이 “제가 그럴만한 뉘뉘미가 못 됩니다.”라며 사양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해 주셔야 해요.” 하면서 떼를 쓰듯 억지를 부릴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솔함과 소박한 말투에서 전해지는 겸손함이 마음에 놓여서였다. 여전히 취재를 마다하는 내용이었지만, 그분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전화를(그 후 취재 일정 조율을 위한 여러 번의 통화도) 약속했던 시간에 칼같이 정확하게 걸어왔다. 그 성실함이 외유내강의 최고경영자, 산업계의 모범 경영자로 존경받는 오늘의 그분을 만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렵사리 만난 그분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따뜻하고 겸손했다.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생각



과 넓은 안목으로 세상을 품어 안고 있었다.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그분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강소(強小) 기업을 세계적 강대(強大) 부품회사로 성장시킨 입지전적 인물이다. “미래를 꿈꾸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

라 완전히 다른 미래를 만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품질과 기술력으로 경쟁에서 최고가 아니라 품질에서의 최고를 만들겠다.”라는 기업 운영 방침을 행동으로 옮긴 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기업가로서의 성공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 경영의 핵심 업무 중 하나로 여기고,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이를 실천해 온 그분의 숨은 이야기였다. 그러나 그분은

“받은 것이 많으니 되돌려드려야 할 것도 많다.”라며 소탈한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사업장이 있는 국내 외 지역사회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회사 차원의 장학금도 있지만 개인적인 것도 많다), 복지단체 기부 및 봉사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십 년 동안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것도 그리 많이 알려진 일이 아니다.

나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친근하면서도 정중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였다. 맛집이라 엇그제는 자리가 없어서 돌아갔다면 그가 자신 있게 안내한 근처 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다. 복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바빠 돌아가는 종업원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메뉴 선택도 맨 나중에. 동행한 두 명의 젊은 직원들은 그런 배려가 익숙한 듯 자유롭게 음식을 골랐다. 초면에, 낮가림이 심한 나와 달리 재기 발랄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분의 모습이 영락없는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처럼 정겨웠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손자 손녀는 끊임없이 종알종알 깔깔깔... 진짜였다. 푸근함에서도 오랜 내공이 느껴지다니. 대기업의 수장이면서도 권위적이지 않고, 나이 불문 예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세상에는 이런 상하 관계도 있구나... 탄복하고, 정말 좋은 어른이구나... 더불어 행복했다.

그분과의 짧은 만남은 내게 어른은 어떤 사람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게 했다. 어른이 없는 시대라고 한다. 어른다운 어른이 없다는 이야기다. 존경할 만한 스승이 없고, 덕망 있는 지도자가 없으며, 믿을 만한 정치인은 더더욱 없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라면 남을 딛고 일어서는 일쑤이야, 내 주머니를 불리기 위해서라면 불의와 타협하는 일쑤이야,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권모술수쑤이야 하면서 양심에 눈 감고 청렴과 담쌓고 정직함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나이만 많은 사람을 어찌 어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물론 훌륭한 분도 많다. 나보다 우리를, 자신의 안위보다 대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시대의 어른이 있어서 오늘의 우리가 있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따뜻했던 이들의 발자취가 공동체의 행복으로 가는 길이 된다. 그런데 그분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낮다. 경남 진주에서 60년 넘게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온 김장하 선생이 그렇고, 내전 중인 아프리카 남수단의 오지 톤즈에서 의사이자 신부로 헌신적 봉사 활동을 펼치다가 48세에 대장암으로 선종한 이태석 신부가 그렇다.

김장하 선생은 100억 원이 넘는 재물을 들여 세운 명신고등학교를 국가에 헌납하고 1,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선생에게 대가 없는 도움과 격려를 받은 이들은 “똥은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되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습니다. 돈도 이와 같아서 주변에 나누어야 사회에 꽃이 핍니다.”라는 선생의 신념을 잊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한센병, 말라리아, 결핵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불모의 땅에 병원과 학교를 짓고 그들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 함께 울고 웃었던 이태석 신부의 헌신도 꽃을 피웠다. 그의 뒤를 이어 의사가 된 제자가 무려 50여 명에 달한다고 하니 한 알의 밀알이 썩어 귀한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 있겠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나도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 하지만 누구나 그러하듯 실천이 영 어렵다. “한 개의 초를 가지고 수천 개의 초에 불을 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초의 수명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행복 또한 서로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는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는 것이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좋은 어른 공부는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이 옥 경

수필가 · 방송작가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가로세로 총/지/문/답

①㉠		㉡			㉢		②㉣		㉤
				③					
④	㉥		㉦						
						⑤	㉧		
	⑥								
㉨							⑦		
		㉩			⑧㉪				
⑨			㉫					⑪	㉬
			⑩						
⑫							⑬		

가로 열쇠

- ①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힘써 일함
- ② 용도를 바꾸거나 손질을 가하여 다시 이용하다
- ③ 판단, 추론, 학습 등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
- ④ 한 해를 스물넷으로 나눈 기후의 표준
- ⑤ 1926년에 발표된 변안 가요. 조선 최초의 성악가였던 윤심덕의 유작
- ⑥ 문제 제기, 전개, 전환, 마무리의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 ⑦ 얇고 가늘게 쪼갠 대나 싸리 따위를 어긋나게 짜서 만든 그릇
- ⑧ 지식, 기술, 사상, 옳고 그름 따위를 깨달아 알게 하는 일
- ⑨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길
- ⑩ 생활과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천연 물질이나 에너지를 통틀어 이르는 말
- ⑪ 나라나 도시 따위를 차례로 돌아가며 방문함
- ⑫ 여러 가지로 뒤얽힌 복잡한 사정이나 변화
- ⑬ 잠시 집을 떠나 가까운 곳에 다녀오는 일

세로 열쇠

- ㉠ 종조님께서 진리를 깨달아 생사윤회를 떠나신 9월 8일
- ㉡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애씀
- ㉢ 어떤 일에 공로가 있는 사람
- ㉣ 재주와 능력을 아울러 이르는 말
- ㉤ 처음은 좋으나 끝이 좋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자녀의 조기 해외 유학으로 혼자 남아 돈을 벌며 보내는 가장. ○○○아빠
- ㉦ 미국에서 노예 제도 폐지를 두고 북부와 남부 사이에 일어났던 내전
- ㉧ 기운이 쇠하여 활기가 없음
- ㉨ 집을 받치는 가장 큰 들보
- ㉩ 자기가 쓴 원고를 겸손하게 이르는 말
- ㉪ 어떤 사물의 바깥쪽 경계에 가까운 부분
- ㉫ 한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는 날
- ㉬ 나무나 쇠 등 둥글고 길게 깎아 만들어, 치거나 두드리거나 다듬는데 쓴다.

무지로부터의 탈피

길을 찾는 나침반이 도서관에 숨어있다

세상의 반은 진실이고 그 나머지는 거짓이다. 낮은 빛나고 밤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 우리는 선과 악이 뒤섞인 곳에서 살고 있어, 세상의 미로를 걷다 보면 언뜻 원치 않은 곳에 이르게 된다. 균형을 잃고 혼돈에 빠지거나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진 곳에서 지나간 시간을 원망하는 일도 생긴다.

인생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단 한 번의 사건이며 돌이킬 수 없는 경험의 과정이지만, 누구나 간절히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을 것이다. 서로 비슷한 것을 원할 것 같아도 깊이 들여다보면 모두가 바라는 것은 같지 않다. 하지만 원치 않는 삶의 모습은 비교적 비슷하다. 그중에 가장 피해야 할 최악은 무지한 자의 삶이다. 무지(無知)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며, 최악의 근본이고, 거짓의 원천이다. 가난한 자는 행복할 수 있어도 무지한 인간을 위한 행복이란 절대 없다. 우리는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승을 찾아 배우고 책을 읽으며 세상을 둘러본다.

현자(賢者)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에 관해 이야기했다. “너 자신의 무지함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무지에 대해 눈을 감고, 아집과 독선에 빠지며 자신이 옳다고 믿는다. 세상 대부분 갈등은 이처럼 무지에 빠진 아집과 독선의 충돌로부터 비롯되었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젊은이에게 지혜의 향연을 베푼 대가는 사형이었다. 젊은이를 타락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죄목이었으니, 누군가는 세상이 지혜를 갖는 것을 두려워했다. 대부분의 사악한 권력, 독선의 자본, 위선의 가르침들은 청년이 눈 뜨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지성의 무기를 가진 인간은 정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의 후예들이 세운 인류 지성의 전당이 있었다. 2,300여 년 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도서관이 세워졌다. 약 70만 개의 파피루스 두루마리, 한 개 두루마리가 160권 분량이라 하니 가히 거대하였다. 당시 인간 지성이 이룬 모든 학문과 사색을 모아둔 곳이다. 고루한 서가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술품을 전시하며 강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두루 있었으니, 대학의 원형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찬란했던 알렉산드리아의 번영은 이곳을 오가는 모든 책을 사들였고 보존하고 출판하였다. 학자들은 책을 읽기 위해 알렉산드리아로 몰려들어 새로운 사색이 이루어지고 지식을 배우려는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그 덕에 알렉산드리아의 교역은 증대하고 문화는 번창하였으며 삶은 윤택한 곳이 되었다. 책과 지식 따위가 군대와 자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해낸 것이다.

포용과 융합의 문화를 이룬 도시 알렉산드리아에는 두 개의 명물이 있었으니 하나는 도서관이었고, 또 하나는 파로스섬의 등대였다. 두 곳

모두 낮과 밤의 항로(航路)를 밝히고 가야 할 지표를 일러주어 인간을 두려움과 무지로부터 구한 곳이다. 이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을 파괴한 것은 무력과 독선이었다. 카이사르의 방화에도 살아남았던 도서관은 콧주교 테오도시우스의 칙령으로 문을 닫았다는 것이 정설이다. 약 700년 영광의 역사도 종교적 독선(Dogma)과 불관용의 폭력 앞에 무릎 꿇었다.

알렉산드리아가 쇠락한 후 채 100년이 되지 않아 인도 비하르에 세계에서 가장 큰 대학이 세워졌다. 날란다 대학, 모두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뜻을 가진 곳이다. 날란다는 모두 7개의 도서관이 있었다. 불교 교육을 위한 대학이었지만, 고대 인도의 천문학, 문학, 의학 등 모든 문헌이 날란단의 도서관에 쌓였고, 중동에서 극동에 이르기까지 명성 있는 학자들이 모여들었다. 그 때문에 새로운 종교적 사조와 인간 정신에 대한 탐구가 가능했다. 번성하던 때는 10만 명 이상이 공부하던 곳이다.

5세기경 세워진 날란다 대학은 안타깝게도 700여 년 후에 파괴되고 만다. 역시 종교적 독단과 무력의 힘

에 의해서다. 날란다 대학 일곱 개 도서관은 모두 일곱 날 밤낮을 불탔다고 전해진다. 불더미 속에서 목숨을 걸고 건진 장서의 일부만이 살아남아 파괴를 피해 히말라야 산속으로 옮겨졌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티베트 대장경의 대부분은 그렇게 살아남은 것이다.

1959년 중국 공산군의 티베트 침공으로 망명길에 나선 달라이라마 일행은 그 힘겨운 피난의 여정에도 티베트 대장경과 장서를 옮겨왔다. 피난길에 나선 난민들은 자신의 집을 버리고 책집을 나누어지고 히말라야를 넘었다. 1세대 난민에게 왜 그리하였냐고 물었던 적이 있었다. 대답은 단순했다. “옷과 돈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지혜가 없다면 인간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지식과 지혜가 없는 인간이란 탐욕과 폭력과 무지의 공포 속에서 살아갈 뿐이다.

도서관은 대학의 시초이며 심장이자. 강의실에서 찾지 못할 해답을 풀 어갈 수 있는 곳이다. 도서관에 늘 새로운 지식이 쌓이고 길을 찾는 사람들이 이어지는 한, 인간은 어떤 문제도 해결해 갈 것이다. 불타버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서가에 쓰여 있던 ‘영혼의 안식처’란 명문(銘文)처럼 욕망과 혼돈에 지친 영혼이 찾아야 할 곳은 진한 커피 향의 카페가 아니라 도서관이다. 서가(書架) 사이에 난 단순하고 올바른 길을 걷다 보면 진실의 편에서 서서 나머지 절반의 거짓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삶의 양지에서 길을 찾는 나침반이 도서관에 숨어있다.

김 천

작가, 시나리오, 다큐멘터리 제작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저서 <불공 잘해라>, <시대를 이끈 창종자>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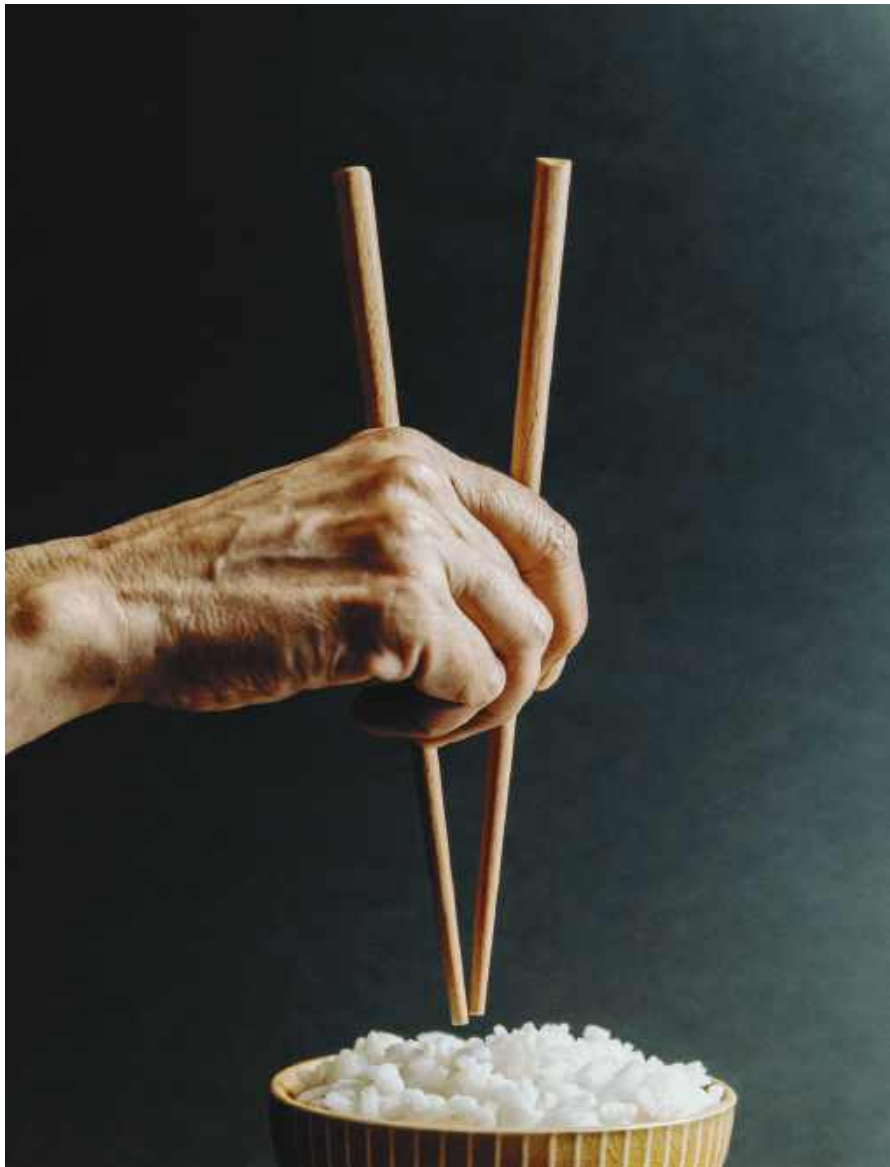
고두밥으로 알아채는 ‘노인의학’

20여 년 전, 우리 한의원에서 치료 받는 환자 중에 김OO이라는 분이 계셨다. 당시 연세가 80 정도 되었고, 한국전쟁에 전차병으로 참전하셔서, 그 공로로 훈장도 받은 분이였다. 연세도 많으시고 참전 후 부상 후유증 등으로 요추협착증과 무릎 관절염, 불면증, 소화기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이분이 아들 며느리 내외와 함께 살고 계셨는데, 한의원에 자주 내원해서 치료를 받으시곤 했다.

그런데 이분이 내원해서는 “우리 집 며느리는 밥을 할 줄 몰라. 밥이 생쌀이야.”, “밥이 생쌀이라서 밥을 못 먹고 나와서 김밥 한 줄 사 먹었어.”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셨다. “밥을 전기밥솥으로 하지 않나요?”라고 여쭙면, “몰라, 전기밥솥으로 하는 거 같은데 밥이 생쌀이야.”하고 대답하시곤 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밥이 생쌀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노인들이 드시기에는 밥이 된밥이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두밥이라서, 소화력이 약한 노인이 먹기엔 생쌀로 느껴졌던 거 같다. 스페인 여행 중에 자주 먹었던 ‘파에야’가 한국 사람들이 먹기엔 생쌀 같은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 젊은 사람들이 꼬들꼬들한 밥을 좋아하기에, 노인들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지 못해서 생겨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노인들은 젊은 사람과 다르게, 소화기관의 소화력도 약하고 소화효소 분비량도 많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리라 싶다.

요즘 ‘노인의학’이라는 분야가 새로이 각광 받고 있다. 19세기 말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19세기 말 프랑스, 독일의 의사들은 노화를 ‘질병이 아



닌 생리적 과정’으로 규정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 의사 이그나츠 레오 나셔(Ignatz Leo Nascher, 1863~1944)가 ‘Geriatrics’라는 용어를 창안하여 노인의학의 전문적 진료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최근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도 노인의학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노인의 생리와 병태는 젊은 성인과 다르므로, 노인에게 맞는 진단과 치료법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주요한 바이오 시그널인 혈압은 노인의 경우, 140~150/90mmHg 정도를 통상으로 판정하며, 대사율이 떨어진 노인은 평균 체온도 36.0~36.5℃ 정도가 흔하다. 혈

당 수치도 노인의 경우, 공복 ≥ 126 mg/dL 정도까지는 정상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체온의 변화도 젊은 성인과 다르게 노인에게는 37.5℃ 정도 만 되어도 상당히 중증 상태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노인의 생리적 변화에 맞추어 치료의 원칙이 정해지고, 치법이 적용되어야 노인의 질환을 잘 다스릴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젊은 성인과 노인의 병을 치료하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노인에 맞는 치법과 처방을 가지고 치료해 왔다. 한의학의 세계적 저작인 <동의보감>에는 노인병을 치료하는 방법과 주요한 처방이 특별히 구분되어 기술돼 있다. <동의보감>의 첫 부분

인 내경(內景) 편, 그중 신형(身形) 부분 말미에 노인치병(老人治病), 노인보양(老人保養)이라는 구별되는 단락을 두어 노인 치료의 대강을 제시하고 주요한 처방을 게재해 두었다.

“노인은 비록 외감이 있어도 맛이 쓰고 성질이 찬 약과 땀을 많이 내거나, 몹시 토하게 하거나, 심하게 설사시키는 약을 절대 사용하지 말고, 성질이 순한 약으로 조리하여 치료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러 증상에 부합하는 처방으로 증손백출산(增損白朮散), 신기환(腎氣丸), 소풍순기환(消風順氣丸), 육군자탕(六君子湯) 등이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처방은 지금도 노인에게 많이 쓰이며, 육군자탕은 인삼, 백출, 복령, 반하, 진피, 감초, 생강, 대추 등의 순하고 보익하는 약재로 구성된 처방으로서 쇠약해진 노인의 질환에 아주 유용하며, 어린이나 성인에게도 효과적이다.

2025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인 전 인구의 25%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2035년에는 65세 이상이 30%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어나서 삶을 영위하다가 떠나가는 것이 하늘이 부여한 생명체의 숙명이라면, 그 마지막 시간까지 인간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의 책임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자신의 수발을 자신이 스스로 해내는 것이다. 어느 정도 거리를 자립 보행할 수 있고, 맑은 정신으로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이의 조건이 된다. 모든 사람이 한의학의 노인치병(老人治病)의 원리와 함께하여,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천수를 누리기를 희망한다.

정은철

나무와 숲 한의원 원장

경북 포항 내연산

열두 폭 굽이굽이 ‘단풍 폭포수’
‘계절의 생’을 갈무리하는 진경산수화

경북소목원에서 바라본 내연산

진경산수의 대가 겸재 정선이 그린 내연산 삼용추(三龍湫)를 볼 겸 짚어가는 가을 경북수목원으로 향했다. 막 해가 뜨는 이른 아침, 맵찬 바람에 겹겹이 끼입은 옷이 무색하게 춥다. 몸은 맥을 못 추고 자꾸 오그라드는 것만 같다.

하늘은 구름에 가렸다. 이따금 구름 사이로 언뜻 투명한 하늘을 보여 주곤 한다. 살짝 벌어진 구름 사이로 이른 아침 햇살이 간간히 비추면서 언뜻언뜻 단풍에 빛을 입히니 색이 더욱 짙고 명암이 선명하다. 곧 구름이 걷히며 산이 온전히 제빛을 드러낼 것 같은 날씨다.

깊은 가을 속으로 접어들다

포항에서 경북수목원에 가기 위해

동해대로로 접어들었다. 청하교차로에서 좌회전한 뒤 비학로를 타고 4.5km 진행하면 서정삼거리다.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수목원로를 타고 가파르게 8km 정도 오르다 보면 어느새 경북수목원이다. 포항에서 출발할 때 동이 떠오던 하늘은 수목원에 도착하자 구름 사이로 해가 살며시 고개를 내밀었다. 가을 아침 선바람을 동반한 차가운 기온임에도 사방이 붉게 물들며 금세 추위를 잊어냈다.

너무 일러 아무 인기척이 없는 수목원에 들어섰다. 가을빛으로 물든 수목원은 온통 화려하다. 활엽수원과 침엽수원을 지나 매봉으로 오르는 길에는 낙엽이 바람에 어지러이 날린다. 가을 색으로 갈아입은 단풍이 눈에 가득하고 밟히는 낙엽은 바

스락바스락 귀를 즐겁게 한다. 그 소리는 마치 가을이 발밑에서 속삭이는 듯하다.

매봉을 오르다 오른쪽 삼거리로 길을 잡는다. 삼거리까지 3km다. 가는 동안 노랗게 물든 온산이 처연하고 아름다워 걸음이 저절로 느려진다. 삼거리 쉼터에 도착하니 벌써 길을 시작한 지 두 시간이 넘었다.

삼거리 쉼터에서 시명리로 갑천계곡을 따라간다. 계곡 위로 드리워진 단풍은 계곡물에 반사돼 더 붉고 노랗게 물들었다. 노란 가운데 섞인 붉음은 오히려 더 짙다. 성가신 바람에도 나뭇가지에 홀로 매달린 붉은 단풍 한 잎이 아름다워 한참을 붙잡혀 있었다. 시명리는 화전민촌으로, 석축과 집터가 옛사람의 삶의 흔적을



시명리 화전민촌의 흔적



보경사



실타래처럼 30여미터의 절벽을 타고 흐르는 실폭포

보여준다. 40년 넘게 비워진 마을은 이제 숲에 파묻혀, 예전의 풍경은 아득한 전설처럼 남았다.

내연산 12폭에 흐르는 가을

시명리부터 12폭포의 모습이 시작된다. 보통은 보경사에서 길을 잡아 상생폭포를 지나면서 시작하는데, 나는 거꾸로 시명폭포부터 들어섰다. 시명폭포를 지나 실폭포, 복호 12호 폭포를 지난다. 실폭포는 30여미터 절벽을 따라 실처럼 흘러내리는데, 마치 은빛 실타래가 풀려 흘날리는 듯 장관을 이룬다.

호랑이가 엮드려 쉰다는 복호폭포를 지나니, 계곡의 폭포와 단풍이 서로 울림을 주고받는다. 첩첩이 쌓인 만산이 황금빛 물결처럼 넘실대니 발걸음은 지루할 틈이 없다. 강한 바람이 불어 노란 단풍을 휘몰아 가면, 햇빛이 그 잎사귀를 반짝이며 춤추게 한다.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화처럼 눈 앞에 펼쳐진다.

은폭포를 지나자 드디어 검재 정선이 화폭에 담은 내연산 삼용추(三龍湫)의 모델, 연산폭포(燕山瀑布)·관음폭포(觀音瀑布)·잠룡폭포(潛龍瀑布)가 나타난다. 삼용추를 제대로 보기 위해 깎아지른 절벽 위 선일대에 올랐다. 선일대에서 내려다보는 삼용추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정선의 그림을 겹쳐 대입해 보니 그 대로다. 잠룡폭포는 숨어 보이지 않지만, 연산폭포와 관음폭포는 화폭 속 장면과 닮아 있었다.

검재의 진경산수화에 취하다

‘내연산 삼용추’는 검재 정선이 58세 때인 1733년, 청하 현감으로 부임한 뒤 절경에 감탄하여 그린 작품이다. 정선은 이상화된 중국 풍경이 아닌, 눈앞의 산천을 그대로 담아낸 진경산수의 거장이었다. 눈을 압도하

는 거대 절벽과 쏟아지는 폭포수는 그림 밖으로 튀어나올 듯 생동한다.

연산폭포에 오르니 수많은 묵객이 감탄하여 바위에 이름과 시편을 새겼고, 암벽에는 지금도 ‘갑인추정선’(甲寅秋鄭澣)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붓 대신 정으로 새긴 그의 자취 앞에서, 나는 시간의 깊이를 실감했다.

무풍폭포와 잠룡폭포를 지나며 계곡은 차츰 온순해진다. 세 갈래 물줄기가 보현암을 감싸며 흐르는 보현폭포, 그리고 마지막으로 쌍폭이라 불리는 상생폭포에 이른다. 두 갈래 폭포가 쏟아내는 물기둥은 거대한 생명의 숨결처럼 터져 나온다.

내연산을 따라 걷는 길은 단풍만 큼이나 시간의 곁을 따라 흘러간다. 바람에 실려 흘날리는 낙엽은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의 무상함을 일깨우고, 절벽을 타고 내리는 물줄기는 쉼 없이 이어지는 삶의 힘을 닮아있다. 폭포 앞에 서면 그 물보라가 얼굴을 스치며 얼었던 마음까지 씻어내는 듯하다. 깊은 산중의 고요는 폭포의 웅장한 소리에 깨어나고, 다시 적막으로 가라앉으며 내면의 사유를 끌어낸다. 걷는다는 것은 결국 자연의 리듬 속에 나를 맞추는 일임을 실감한다.

가을, 화양연화(花樣年華)

보경사에 오니 절집 전각들이 노을빛에 물들어 있었다. 스님들의 발자취가 깃든 법당 마당에 서면, 단풍잎이 흘날리는 모습조차 한 편의 경전 같다. 나그네가 잠시 머물다 떠나는 길 위에 자연은 한순간도 같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 오늘 본 내연산의 가을은 내일이면 또 다른 빛깔로 변해 있을 것이다.

경북수목원을 출발해 보경사에 이르는 16km를 걸었다. 붉은 단풍보다 처연하고 아름다운 참나뭇과의 황갈색 단풍에 물든 깊은 가을 속으로 폭 빠져들었다가 나왔다. 가을바람에 흘날리는 낙엽은 화려하게 흘날리면서 제 몫을 다했다. 화려한 단풍에 빠져들었다가 검재의 진경산수화로 보았던 가을 내연산 12폭포도 가슴에 담았다. 가을로 접어드는 이때 내연산의 진경이 화양연화가 아닌가 싶다.

박 성 기

자유 여행가
도서출판 깊은샘 대표
저서 <걷는 자의 기쁨>

은폭포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7월 26일 ~ 8월 25일까지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건화사	이정수	8/21	30,000	법성사	장정숙	8/22	10,000	자석사	지현	8/11	10,000
	최동혁	8/21	10,000		신말심	8/22	40,000	잠원햇살 어린이집	김선희	7/28	80,000
	최지유	8/21	10,000		남혜	8/25	10,000				
관성사	법선	8/25	10,000	법천사	반야심	7/31	10,000		정각사	안한수	8/10
국광사	진여	8/20	10,000	법황사	서복남	8/11	10,000	탁상달		8/13	10,000
기로스승	공덕성	8/25	10,000		박미경	8/25	10,000	법일		8/20	10,000
	수증원	8/25	10,000		인선	8/25	10,000	노점호		8/20	10,000
	밀공정	8/25	10,000		정계월	8/25	10,000	총지사	김종필	8/4	10,000
	법지원	8/25	10,000	벗고을어린이집	이민선	8/1	80,000		유은혁	8/5	10,000
	일성혜	8/25	10,000	사원명 무기명	박필남	8/14	10,000		정연경	8/5	10,000
	사홍화	8/25	10,000		하명순	8/25	10,000		김정환	8/9	10,000
	선도원	8/25	10,000	석관실버 복지센터	신찬호	8/25	10,000	혜정사	백귀임	8/11	10,000
	안주화	8/25	10,000		이태윤	8/25	10,000		최영례	7/28	10,000
	진일심	8/25	10,000		박현정	8/25	20,000	조성기	8/20	20,000	
	최상관	8/25	10,000	선립사	지명	8/9	10,000	화음사	행원심	7/29	10,000
	연등원	8/25	10,000	세곡키움센터	남경식	7/27	10,000		이은별	7/29	10,000
	자선화	8/25	10,000	수계사	자심관	8/25	10,000		송영근	8/1	10,000
	승효제	8/25	10,000	수인사	법상	8/18	20,000		송하나	8/1	10,000
	주신제	8/25	10,000	시법사	혜광	8/11	10,000		송호영	8/1	10,000
	총지화	8/25	10,000		이순영	8/11	20,000		무명씨	8/1	10,000
단향사	지홍	8/19	10,000	실지사	정우석	7/28	10,000		박대영	8/1	10,000
덕화사	법상인	8/18	20,000		황성녀	7/29	20,000		박대성	8/1	10,000
동해사	김진화	8/9	10,000	아동회관 어린이집	진금선	7/31	80,000		홍춘자	8/1	10,000
	송인근	8/20	10,000			8/25	80,000		이성희	8/22	10,000
만보사	강명순	8/1	10,000	양지동복지회관	서영주	7/28	10,000		힐스어린이집	곽방은	8/11
	홍도열	8/18	30,000	양지어린이집	정동숙	7/28	80,000	위드다르마	남혜	8/25	10,000
	김정희	8/19	10,000	운천사	무명씨	8/5	30,000		총지화	8/25	10,000
	송석원	8/20	30,000		이성미	8/5	50,000		자선화	8/25	10,000
밀인사	박길선	8/11	10,000		보명심	8/18	10,000		법공	8/25	10,000
	덕광	8/11	20,000		우인	8/18	10,000		이수영	8/25	10,000
	황갑용	8/17	10,000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8/25	80,000		불교총지종	8/21	1,110,297
밀행사	지회일동	8/15	100,000	자석사	도우	8/11	10,000			진여	8/4